

2014 WINTER

VOL.46

평신도

- 만 남 |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정신철 주교 인터뷰
- 이야기 | 사회교리와 평신도
- 나눔 | 매리지 엔카운터 부부일치운동
- 배움 | 레지나의 로마서 이야기



평신도

2014 WINTER

VOL.46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ditor's Letter



그리스도의 평화!

2014년 봄, 우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재난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셔서 시복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비탄에 젖은 우리를 위로하셨지요. 그 고통과 위로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진행형으로 남아 스스로를 성찰케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는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므로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느님께서 특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14~2015년 '평신도' 겨울 호의 주제를 '신앙의 기쁨'으로 잡아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멋대로 사는 삶이 있는 반면 자신을 오롯이 하느님과 타인들을 위해 봉헌하는 삶이 있습니다. 결과는 마음속 감옥과 평화의 삶으로 귀착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려주는 정신물리학 창시자 독일의 구스타프 페히너의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산다. 첫 단계는 끊임없이 잠만 자는 생애인 어머니 배 속 삶이다. 둘째 단계는 잠자고 깨기를 반복하는 생애인 현세이다. 셋째 단계는 늘 깨어 있는 생애인 내세이다. 첫 단계는 그곳에서는 전혀 필요없지만 둘째 단계에서 사용해야 할 눈, 코, 입, 손 같은 것을 만드는 태아의 상태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셋째 단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든다. 태아는 현세의 찬란한 광채와 문화를 전혀 모르므로 현세로 옮겨 감을 일종의 '죽음'으로 여기겠지만, 현세에서 볼 때 그것은 생명이 약동하는 '출생'이다. 험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셋째 단계에 있는 찬란한 자유를 조금도 모른다.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는 좁고 감감한 통로를 이 세상사람들은 '죽음'으로 보겠지만, 저 편에서 본다면 영원한 세상으로의 '출생'이다.”

'신앙의 기쁨'이라는 주제에 맞춰 겨울 호에는 정신철 인천교구 보좌주교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신당동성당 총회장을 지낸 김창환 형제, 매일경제 영남취재본부장 현문학 형제, 고이태석 신부님 실제(實弟)인 이태선 형제, 분당 성마태오성당 이희재 자매 등이 각자의 상황에서 신앙의 기쁨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 밖에 교황 방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를 김문태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이 정리하셨고, 운영학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평의회 의장단 평의원께서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들에게 하신 교황님의 말씀을 번역해 들려주셨습니다. 유학을 떠나거나 중요한 봉사를 맡게 되어 연재를 계속하실 수 없게 된 분들을 대신하여 가톨릭신문의 베테랑 기자 서상덕 형제가 '교회 돌아보기'라는 코너로, 한국일보 문화부장관 논설위원을 역임한 총리실 공보관 이대현 형제가 '영화 속 인간과 세상'이라는 칼럼으로, 로마 그레고리오대학에서 로마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서학자 임숙희 자매가 '로마서 이야기'란 주제로, 월간 중앙 나권일 기자가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인터뷰를 맡아 새 연재 필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로써 풍성한 나눔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전국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승이 이어지고 인생 순례의 여정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4년 9월 현재)

| 소속 | 이름 | 세례명 | 이메일주소 |
|-------------------------|-----|----------|-------------------------|
| 서울평협 | 신동수 | 세라피나 | sera006@hanmail.net |
| 대전평단협 | 이병인 | 미카엘 | duck1995@hanmail.net |
| 인천평협 | 김선우 | 다미아노 | ksw7287@hanmail.net |
| 원주평협 | 백정현 | 임마누엘 | wonju@pbc.co.kr |
| 대구평단협 | 양해동 | 사무엘 | yanghaedon@hanmail.net |
| 부산평협 | 공복자 | 유스티나 | kongbog@hanmail.net |
| 청주평협 | 정영수 | 프란치스코 | cjys2000@korea.kr |
| 광주평협 | 정춘자 | 로사 | jlosa1208@hanmail.net |
| 의정부 평단협 | 권미영 | 모니카 | teletong@naver.com |
|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 손세공 | 비오 | eldison@naver.com |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한경숙 | 마리안나 | kshan628@nate.com |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강영숙 | 마리아 막달레나 | magdalena57@hanmail.net |
|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두현자 | 울리안나 | doonim53@hanmil.net |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황웅진 | 헨리코 | pravda89@naver.com |
|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 김혜원 | 울리아나 | yuliana88@hanmail.net |
|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 송애련 | 젬마 | ae4789@hanmail.net |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CONTENTS

VOL.46 | 2014 WINTER

평
신
도



| | |
|-----|---|
| 인사 | 02 한 해를 정리하며 권길중 |
| 만남 |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나권일 08 정신철 주교 인터뷰 배봉한 |
| 휴식 | 11 공소의 겨울 풍경 김한얼 |
| 이야기 | 12 서상덕 기자의 교회 토크아보기 (1) 서상덕 16 수도회 영성 이현주 18 심리 상담 조은영 21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윤영학 24 교황 방한 이후 한국교회의 새아침 김문태 26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에 이태선 28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대박 김창환 30 거룩한 독서의 충만한 기쁨 이희재 32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아는 순간 현문학 35 서원만의 만화세상 서원만 36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4) 지영현 |
| 나눔 | 38 평신도가 된다 매리지 엔카운터 42 김길수 교수의 복자들의 영성 (4) |
| 배움 | 46 김문태 교수의 인문학 강좌 (4) 49 허연 기자의 명작 속 하느님 (4) 52 이대현의 영화 속 '인간과 세상' (1) 이대현 55 마리아의 성화 이야기 (2) 고종희 58 레지나의 로마서 이야기 (1) 임숙희 62 아가다의 음악편지 (4) 양인용 64 평신도 양서 신동수 |
| 소식 | 66 평신도 뉴스 |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아, 오원수 바오로,

이지연 마리아 (가나다 순)

편집장 김선동 루카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겸손의 덕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정리합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

해마다 자색 대림초에 불을 붙일 때면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이 외롭게 남아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한 해가 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지 못한 채 지고 있는 한 해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대림절을 두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거꾸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시절에 성경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상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오복음 22장과 루카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중에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내어 잔치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초대했지만 어떤 이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면서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마을 어귀로 보내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지만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걱정하고 있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절을 읽어보면 임금이 잔칫방을 가득 메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하인들에게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 버려라.

“혹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임금이 말한 혼인예복)이 없을 때 우리는 밖에 내던져지는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명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잔칫방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을 때는 언제고 혼인 예복을 핑계로 이렇게 내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따지듯 의문을 표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 같은 의혹과 불신은 어른이 된 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혼인 예복’이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나눔’임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림초에 불을 붙이면서 이 복음 구절을 말씀드리 는 것은 우리 모두가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성체를 통해서나, 교회 장상들을 통해서, 일치된 작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어린이와 가난하고 힘없는 딱한 이웃 등 형제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신 복음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들을 찾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 그분을 만나 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렇게 온후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당신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 걱정과 할 일들 때문에 그분을 알아 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공부가 더 급해서, 사업이 바빠서, 상품대금을 추심해야 하니까, 직장 상사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니까 등 많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찾아 주시는 예수님을 냉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임금이 말한 혼인예복)이 없을 때 우리는 밖에 내던져지는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양으로 분류된 선한 사람이 “언제 제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으며, 마실 물을 드렸고,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마태 25.31~46 참조)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목마르며, 헐벗고, 굶주리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딱한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이런 분들 안에서 고통 받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고, 내가 가진 바를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대림절을 몇 번이나 지나도 예수님을 뵈 수 없을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면, 하느님께서 채무자가 되십니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일’은 하느님께 빛을 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지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혼인예복을 갖추고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식에 얽매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마태 22,14)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아니오를 못하고 살아온 인생... 그래서 행복합니다”

정기희 요셉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지난 11월 11일 평협 사무실에서 정기희 인천교구 평협 회장(59)과의 만남은 인터뷰 이전에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었다.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들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지면에 신도록 허락해 주신 정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집자 주>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Q 인천교구 평협 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A 네. 제가 2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웃음) 지금도 생각나는 게 2012년 8월께입니다. 제가 평협 부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날이 마침 월요일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사제 연례피정을 가시면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난데없이 “부회장님! 평협 회장을 맡아 주세요.” 딱 그 말씀만 하시고는 제 말도 들어보지 않고 5일간 피정을 떠나 버리신 겁니다. 그날부터 신부님이 돌아오실 금요일까지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제가 “아니오.”를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거든요.(웃음) 그런데 사실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며칠을 말없이 고민하는 것을 보더니 아내 루치아가 그러더군요. 어떡하겠느냐고, 신부님 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라고요. 나중에

피정에서 돌아오신 신부님을 뵈었더니 “참 잘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2년이 지났잖아요. “신부님, 저 임기 다 됐는데요.” 하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연말까지는 채우셔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장기집권이죠.(웃음)

Q 회장 일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A ‘하느님 사업’이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야 ‘어찌 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게 되지만 어느새 물 흐르듯이 다 이뤄진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도록 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처음에 회장을 맡아서 임원진을 구성할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교구에는 여성연합회, 성

소후원회, 꾸르실료, ME, 레지아, 빈첸시오회, 성령쇄신봉사회 등 주요 7개 단체를 포함해 모두 34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성연합회장께 가서 평협 여성부회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성소후원회장님도 부회장님으로 모셨지요. 꾸르실료 회장은 평협 행사부장으로, 레지아 단장은 교육선교부장으로, 빈첸시오회장은 사회복지회장으로, ME 회장은 가정생명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미사 전례건 중요 행사이건 업무 배당만 해 주면 다 알아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인복이 많은가 봐요.(웃음)

Q 어려운 직분을 맡았을 때 잘 수행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A 하느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봉사 일을 맡기더라도 한 과정을 마치면 다음 과정으로 연계되도록 꼭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하느님은 절대 공짜는 없다. 생짜배기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이 못하는 것은 다 가르쳐서 일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본당에서 꾸리아 부단장을 먼저 맡게 한 뒤 꾸리아 단장을 맡게 하셨어요. 평협 회장 직분도 부회장을 거치고 나서 맡기셨고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봉사를 부탁드릴 때도 신자들이 “저는 그 일을 잘 몰라요.”라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다 일러 주십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신답니다.” 하고 말씀드리죠. 그것이 제 신앙생활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Q 인천 평협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A 우리 인천교구가 상당히 넓어요.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 강화도와 서해 부속 5개 섬이 모두 관할 구역입니다. 12개 지구에 122개 본당, 36개의 공소가 있지요. 사제가 300명이 넘어요. 교구 관할 구역이 넓다보니 평협이 본당 회장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협에서 강화도 갑곶순교성지 안에 영성센터를 지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지요. 영성센터가 만들어진 뒤로 본당 회장이나 임원진이 1박2일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2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천교구가 주관했잖아요. 그때도 갑곶영성센터에서 회의를 잘 마칠 수 있었지요.

Q 인천교구 평협은 요즘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A 교구장이신 최기산 주교님께서 늘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가정의 성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라도 TV도 끄고 휴대폰도 끄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례 받고 나서 쉬는 교우가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평신도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는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본당사목 못지않게 직장 사목도 중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사목 등 특수 사목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그래도 일 하시면서 힘들 때는 없나요? 혹시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없나요? (웃음)

A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없지는 않죠.(웃음) 제 진심과 다른 엉뚱한 얘기가 귀에 들려올 때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 대해 ‘~카더라’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나만 아니면 돼. 하느님은 아실 테니까’ 그러고 말죠.”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가 (회장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해 오면 저는 모른 체 하고 있다가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만이죠.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걱정하는 임원이 있으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냥 뒤~” 그래요. 그러면 임원들이 제게 그러죠, “아휴, 회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웃음).

Q 본당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니오.”를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본당이 답동 주교좌성당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팔팔한 나이에 갑자기 사목회장을 맡게 됐어요. 신부님이 부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초코렛 2개를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한 입 깨물고 있는데, “사목회장을 맡아 줘야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제 나이가 몇인데요? 48살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 그 나이에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하더라.” 딱 그러세요. 공교롭게도 클린턴이 만 47세에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끽끔 앞으려 집에 갔더니 아내가 또 그래요 “아니 왜 또 아니오를 못했느냐?”고(웃음)

제가 아내와 함께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숙녀복 장사를 30년을 했어요. 작년 8월에야 그만두

었죠.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좀 낼 수 있으니까 봉사도 하게 됐는데, 기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성당에서 독서하라면 하고, 해설을 하라면 해설을 하고, 장례 미사 때 복사를 서라면 복사를 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교좌성당의 사목회장이라는 직분은 또 다르잖아요. 신부님께 그 말씀을 듣고 며칠 지나 장례미사를 갔는데, 그때도 제가 복사를 썼어요. 미사를 마치고 나서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미사 드리며 삶과 죽음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신부님께 ‘예’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사목회장을 5년 동안 봉사하게 됐어요.

Q 교구 평협 회장이기 전에 날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이시잖아요.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언젠가 성당의 여성단체장 한 분이 신부님께 “신부님! 좋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신자들이 잘 살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봐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하느님이었으면 어떠셨을까? 하느님도 이리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남들과 다투었다가도 화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게 행복이죠. 제 딸아이가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군대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교적 찾아오라고 했죠. 교적 안 가져오면 내 딸 안 보내! (웃음)

Q 신앙인으로 살다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하느님께서 회장님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 제가 직분을 맡았을 때 많은 분이 도와주는 힘이 모여 일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거든요. 그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죄 짓지 않게 율타리도 쳐 주시고요. 본당 신부님이 제게 사목회장 일을 맡기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장은 반원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은 구역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목회장은 본당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요. 저는 인천교구의 평신도 48만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48만명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알게 되니 힘이 막 솟아나지요. 평협 회장을 마치면 지금 하고 있는 본당 연례회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연례회가 선교의 보고(寶庫)잖아요. 냉담자들이 돌아오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Q 마지막으로 평협 잡지의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늘 기도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신자답게 잘 살려고 합니다. 순리대로 살고 사심 없이 사는 것이죠. 살면서 내 자랑할 것 없이 말없이 봉사하다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예뻐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신앙인의 기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천교구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51세)를 11월 25일 인천교구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정 주교는 1964년 인천에서 출생해 1993년 사제품을 받고 인천교구 삼정동 보좌를 거쳐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파리 가톨릭대학에서 공부한 뒤 2002년 역곡2동 보좌, 2003년부터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던 중 2010년 4월 주교로 임명되어 6월 16일 주교로 서품됐다. 인천교구 총대리로 사목하며 주교회의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담·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올해는 25년 만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앙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언행일치가 완전히 되신 분,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깊으신 분이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에 라틴아메리카 한국가톨릭선교사회(AMICAL) 모임에 가서, 아르헨티나 교포로서 주교가 되신 문한림 주교님한테 교황님의 옛 모습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교황님은 자주 빈민가를 찾아가셨는데, 가서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셨답니다.

거기서 울부짖는 소리, 싸우는 소리, 가난에 찌들려 악에 받쳐 나오는 소리 등을 들으며 교황님은 마음으로 함께하시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개선만을 생각하는데, 교황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공감하려고 하셨기에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깊고, 복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오



셔서 신앙의 기쁨,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교가 되는 것을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베르나르디노 성인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베푸신다.”(성무일도 3월 19일 제2독서)고 하셨는데 그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제 생각을 많이 포기하고 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살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유학시절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고통 속에 은총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주교직에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기도나 일에 더 충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았기에 하느님께 더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통도 있지만

“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가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영적인 가난, 부족함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그분들한테서 배웁니다. ‘교회의 직분을 떠나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신앙인이라고 하면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더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리교육을 전공했는데 주교가 되고서는 교구에서 특강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내년 초에는 교리교육에 관한 책을 내려고 합니다. 주교로서 살면서 제 전공을 살린다면 아마 양성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평생교육의 시대 아닙니까. 교황청 문헌을 보면 사제들의 평생교육에 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교리교육 총지침도 평신도들의 신앙의 쇄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대표라고 할 때 사회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교회에서 대표는 봉사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위한 것인가 등을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신도 양성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파리외방전교회에서 4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선교를 떠나는 새 신부님들과 선교지에서 휴가를 나오는 신부님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교가 되어 곧바로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

웁니다. 저도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순수한 신앙의 기쁨에서 나오는 열정 문제에 대해서는 혼탁할 때도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이라 ‘어쩔 수 없다.’는 수식어를 붙여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가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영적인 가난, 부족함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그분들한테서 배웁니다. ‘교회의 직분을 떠나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신앙인이라고 하면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신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주교입니다.’라는 말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의 구도자로서 나아가려 하는가 하는 그 기쁨이 흘러넘칠 때 신자들을 위한 주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목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의 삶은 큰 힘이 되고 기쁨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 하나 저의 원동력은 베트남 교회입니다. 26개 교구에 33명 정도의 주교님이 계신데, 열두세 분과는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교회를 1~2년에 한 번은 꼭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을 때처럼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분들이 성당에 와서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며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본당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 현장 경험은 아주 부족합니다. 사제로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들어와서는 신학교에만 있었기에 교황님처럼 현장에 달려가곤 하는 체험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구에서는 1박 2일 지구별로 사제연수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신부들이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봉사하는 것이 습성이 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봉사하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이론으로만 남게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청년들과 연탄을 나르기로 했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보려 합니다. 그리고 큰 축일이 되면 2~3년 전부터 어려운 시설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양성하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 범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쁨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잔잔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신부님들과 야구를 같이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발전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즈음은 교구마다 신부님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잘 모릅니다. 교구 벽을 허물자고 하는데 신부님들부터, 신자들부터 스스로 장벽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물꼬를 트고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연예인 야구단과 다문화 가정 돕기 시합을 할 때 일이 있어 시구만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7개 교구에 사제 야구단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리그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제들끼리 교류도 하고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듯합니다.

제 주교직 모토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입니다. 주교 수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도하고 있을 때 떠오른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해 왔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안에는 2000년 동안 고백되어 온 숨결이 있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풍요로운 말씀인데 문자 안에 숨겨진 숨결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하시면서 기쁨도 없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배신감을 느낄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활동을 할 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쁨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낄까요? 자기중심으로만 살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인 중심으로 살라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쳤을 때 너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느낄 거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연습, 희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으로 살다보니까 남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쁘고 나를 만족시켜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싫다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 아니죠.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때 신앙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주, 남적 공소

공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가 본 데가 상주라고 기억됩니다. 삼각대를 펼치고 있으면 어르신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소?” “아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거 뭐 하러 찍소?” “그냥 좋아서 찍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상주의 어느 공소에 들렀는데, 일흔을 훌쩍 넘기신 어르신이 가만히 나를 보더니, 추우니까 커피나 한 잔 하라고 공소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은 몇 마디 하지도 않고, 묵묵히 커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데, 그 어르신은 아무 말도 없이 보이지 않는 듯한 깊은 미소를 감추시며 윗동네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렇게 말 없이 마신 것은 처음이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마신 기억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 어르신은 행동으로 따뜻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실천이 가장 힘있는 선교이자 설득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직접 벽들을 찍어 나르고, 벽을 쌓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공소일 것이고, 그 어르신은 거기를 집처럼 드나드신 게 오십 년은 되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교리와 평신도

서상덕 편집위원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사회교리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사회교리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지난 9월부터 한국교회 곳곳에서는 사회교리를 공부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 대전교구를 비롯해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서울대교구 등 각 교구와 단체들은 다양한 사회교리 강좌를 마련해 신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교구는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천안 쌍용2동성당에서 사회교리 학교를 열었다. 이 강좌를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적인 주제뿐 아니라 환경, 노동, 경제, 평화, 정치 등 신자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가톨릭 사회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전교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전에서 매달 명사들의 특강과 함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라는 이름으로 월례미사를 봉헌하고 강의를 듣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의정부교구는 단계별로 사회교리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회교리 저변 확대의 물꼬를 텄다. 의

정부교구는 9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경기도 파주 운정성당에서 사회교리학교 1단계를 열었다. 또, 1단계를 수강한 이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의정부 신앙교육원에서 2단계 강좌를 마련했다.

인천교구도 지난 9월 17일 성염 전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인천교구 교구청에서 사회교리학교를 열어 호평을 얻었다.

100회째를 맞은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는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가톨릭회관에서 총 13회에 걸쳐 열려 교황 레오 13세를 비롯해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등의 교황 회칙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가정과 생명, 노동, 정치 공동체 등 사회와 밀접한 주제를 다뤄 사회교리 확산에 일조하는 모습이다.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 한국사회의 인권 지평을 넓혀온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인권을 고민해 보는 '인권' 연속강좌를 열어 사회교리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사회교리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자들에게는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렵게 여겨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과 연결된 친숙한 주제로 사회교리 확산을 꾀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인천교구에서는 이론을 넘어 생활과 연결된 친숙한 주제로 사회교리를 가르치는 평신도 강사들이 탄생했다. 지난해 서울대교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사회교리학교 1기 강사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6명의 평신도 사회교리 강사를 배출했다. 평신도 사회교리 강사는 기존 사제나 수도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교리 교육에 비해 적잖은 이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교리학교 1기 강사과정 지도를 맡은 박유미 연구원(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은 "사제나 수도자가 사회교리를 강의하면 신자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평신도가 하는 강의에서는 문제 제기나 토론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평신도 강사들은 사회교리학교 등에서 사회교리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교리학교 강사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사회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연한 장유금 씨(인천 송현동성당)는 "세상 문제는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시작된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를 사회교리에 비춰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선을 지향할지 다뤄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정해 성서와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탐구하고, 발표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 사회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인천교구 사회교

리 강사과정의 특별한 점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본당에서 청년들을 모아 사회교리 강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생각이다.

사회교리학교 1기 강사과정을 기획한 김윤석 신부(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장)는 "평신도 사회교리 강사는 사제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많고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신자들이 흥미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구에 앞서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013년 사회교리학교 강사 1기 교육을 마치고 5명의 평신도 사회교리 강사를 배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특히 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교회와 세상은 별개라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이 급격히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면서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회가 지난 2011년 인권주일로 시작하는 대림 제2주간을 사회교리주간으로 제정한 이후 교구마다 사회교리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확산 속도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실제 서울대교구가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한 지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사회교리'라는 용어조차 낯설어하는 신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성경을 주관적·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사유화(私有化)가 신앙생활의 개인주의



화, 교회와 세상의 분리, 여가활동으로서의 신앙 등의 문제를 불러 교회에서 정서적·심리적 만족만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런 풍토 속에서 정서적·심리적 불편을 주는 주제, 즉 사회교리를 피하게 되고 교리의 일반적·추상적인 면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돼 교회와 세상의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신부는 또 “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공동선을 다루고 정치공동체 생활, 평화와 국제 공동체 등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신자는 많지 않다.”며 “사회교리는 교회 시작부터 존재했으며 내적 쇄신과 외적 복음선포 사명의 핵심임에도 교회는 일반적 가르침만 전하고 사회교리를 알리는 데 소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박문수(프란치스코) 부원장은 “신자들이 교회의 사회문제 개입에 불편해하는 이유로 소수화에 대한 두려움, 자선으로의 도피, 성숙이원론의 연장에 있는 영성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사회교리 기피를 조장하는 현실에 교회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교리주간 제정을 전후해 의정부교구(2011년 8월), 부산교구(2012년 4월), 대구대교구(2012년 10월) 등이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한 바 있다. 또 각 교구와 본당별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미사 토론회 강연회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청년들을 위한 교리서에도 사회교리 교육이 강화되는 등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 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교회와 세상은 별개라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이 급격히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면서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러한 노력에 비해 상시적으로 사회교리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공간의 부족과 사회교리 강사 부족 등의 문제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박동호 신부는 “우리 시대가 던지는 도전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새 복음화’ 노력이 바로 사회 교리 실천”이라며 “사회교리에 대한 신자들 인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신도들이 사회교리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시대가 던지는 징표를 제대로 성찰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평신도들 사이에서 ‘현실정치에 종교적 신념이 개입하면 위험하다’는 성숙이원론적 논리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의견이다.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이동화 신부는 “한국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대다수인 평신도들의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새로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은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천명해 온 것”이라며 “대다수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평신

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 18일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 미사 강론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가 혼탁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계속 혼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에둘러 ‘사회 참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자 책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1960년대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꾸준히 개혁을 지향하며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 고유의 내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치적 태도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폄하하는 태도는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가톨릭교회는 현실에서 어떤 정치체제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로 하느님의 뜻과 이웃의 선익에 반하는 ‘죄의 구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7항 참조)

교회는 폐쇄적 지배집단의 강압에 의해 침묵하거나, 때로는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죄의 구조들의 확장을 돕는 위치에 서기도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이 실종되는 상황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존재가 평신도들이다. 



세상 한가운데서 프란치스칸 삶을 살며



이현주 가타리나 재속프란치스코회 국가봉사자

세계 가톨릭교회가 함께 지내는 '봉헌생활의 해'(Year of Consecrated Life)가 개막되었다. 교회 안에는 재속 신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랑의 완성에 이르며, 서약으로써 각 수도회의 방법과 교회가 인가한 회칙에 따라 복음을 살리고 노력하는 평신도들이 있다. 복음삼덕(청빈, 정결, 순종)을 공식적으로 서약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수도자와 평신도로 살면서, 자신의 삶과 직업의 활동 등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쁨의 성소를 살고 있는 재속회를 소개하는 것은 '봉헌생활의 해'를 맞아 신자들에게 진정한 봉헌생활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획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교회 안에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1181~1226)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적 식구들이 많이 있다. 우선 남자 수도회인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자 수도회인 글라라 봉쇄수도회, 그리고 재속에서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는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있다. 이 세회는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창설한 회(會, Ordo)이다. 이 밖에 시대에 따라 창설된 수도3회와 재속회가 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적 가족을 이루는 프란치스칸 가족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서로 연대하며 형제애를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45개국에 45만명 정도의 단일 가족을 이루고 있는 회가 바로 재속프란치스코회이다. 8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사부 성 프란치스코 시대에는 '회개하는 형제회'로 불렸다. 이 명칭은 1회인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초기 명칭이기도 하다. '회개'라는 속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800여 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성은 바로 회

개 영성이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없이는 '회개'는 글자에 불과하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 회개 생활의 모범이 된 성인 성녀는 무려 100여 명이나 된다. 그중에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프랑스의 루도비코 성왕, 코르토나의 마르가리타, 폴리뇨의 안젤라, 스웨덴의 비르깃타,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카 로마나, 비오 10세 교황, 요한 23세 교황 등은 800여 년의 역사에서 교회의 빛이 되어 누구에게나 익숙한 성인 성녀들이 있다. 이 밖에 수도회를 창설한 성인 성녀들도 많이 있다.

교회는 시대에 맞는 회칙을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인준해 주고,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1221년 회칙 인준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978년 6월 24일자로 교황 바오로 6세가 인준하신 현 회칙 또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교회의 부르심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3회'라는 명칭을 '재속프란치스코회'로 칭한 데서도 그 소명을 찾을 수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명칭 자체가

회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재속에서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정신을 따라 사는 이들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재속프란치스코회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주는 말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국제공동체이다. 국제 총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국제평의회가 전 세계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가장 상급 형제회이다. 그 산하에 각국에 구성되어 있는 국가형제회, 그리고 그 산하에 지구형제회, 그리고 가장 기초 단위인 단위형제회가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나라마다 규정한 기간에 의해 서약(professio)을 하게 되는데, 서약을 하면 가장 기초 단위인 단위형제회에 속하게 되며, 이곳에서 형제회 생활을 하게 된다. 서약을 한 회원들은 교회 구조와 같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구조 안에서 영적으로, 조직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단위형제회의 생활은 그 단위형제회의 평의회가 회헌과 상급의 지침을 따르면서 자율적으로 형제회 안에서 회원들이 프란치스칸 삶을 살 수 있는 계획과 실행을 하게 된다. 회원들의 지원, 입회, 서약을 결정하고, 서약 후에도 회원들의 영적 삶을 관리한다. 단위형제회는 무엇보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형제회 생활을 이끌어 간다. 상급 형제회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도 자신이 속해 있는 단위형제회의 일원이다. 그만큼 단위형제회는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하다.

필자가 처음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20대 중반이었다. 수녀원에 간 언니가

갓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소개해 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온통 연세가 드신 할머니들만 눈에 띄었다. 필자처럼 어린 사람은 없었다. 그만 도망가고 싶었다. 영성생활을 해 보겠다고 찾아온 곳이 이렇게 할머니들뿐이라니...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우리 부부의 손을 잡아 주시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오시고, 한 달 동안의 안부를 물으시는 것이었다. 할머니들의 따스한 손길은 어느 새 공동체의 온기를 내 마음 깊이 받아들게 되었다. 칠락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할머니 회원들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사제들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커서 보좌신부에게도 고개를 90도로 숙이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성당의 굽은 일 또한 기쁘게 행하시곤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감동은 회원들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선행과 덕행이었다. 겉으로 남루해 보이는 어느 회원은 평생 남몰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텅마를 주워 모은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몰래 돕는 할머니도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 같아 보였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형제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에도 눈물이 머금어질 때가 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성지 청소를 도맡아 하는 형제회, 몇 십 년을 본당 화장실 청소를 하는 형제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형제회 등 크고 작은 일로 교회의 밑알이 되는 형제들은 재속프란치스칸 생활의 감동을 늘 멈추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동이 늘 함께 하는 멋진 형제회를 교회 안에 있도록 섭리해 주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릴 뿐이다. 

부부의 엇갈린 소통



조은영 히야친다 영성심리상담 전문가

부부의 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몇 년 전 당장이라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라도 할 것 같은 한 부부가 찾아왔다.

부인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대충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남편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심리검사를 해 봐야 한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내가 언제 무시했느냐?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무시했지?”

부인이 말을 가로막으려 했다. 순간 나는 잠깐 멈추게 하고 남편에게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기분 대신 부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게 한다. 무슨 말만 하면 꼭 트집 잡고, 비교하고, 정말이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내가 부인에게 얘기했다.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인은 평평 울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시댁 일 우선이고 내 일은 뒷전이었는데...” 하면서 평평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어떤 기분이냐고 물으니 억울하다고 하였다. 그렇다. 억울한 마음인 것 같다. 억울한 감정을 들으니 부인의 감정과 행동이 이해가 갔다. 이 모습을 남편은 짜증나는 듯이 보고 있었다. 마치 여러 번 이러한 광경을 본 듯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기분이냐고 물으니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언제까지 저 타령인지.” 두 부부 사이에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다음엔 캐묻고 따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입증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즉 “내가 언제 그랬느냐?” “당신이 매번 그러곤 꼭 시치미다. 난 그게 더 화가 난다.” “몇 날 며칠 어떤 상황에서 그랬다.” “그럼 그때 왜 얘기 안 했느냐?” 등이다.

부부 상담에서 이러한 모습은 낯선 장면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물었다. “너무 많아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예를 들어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된장찌개에 밥을 차려 주면 꼭 짜다는 등 싱겁다는 등 한 번도 고맙게 먹어 주지 않는다.” “내가 언제 매번 그러느냐? 지난번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네 했더니 갑자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하면서 가져다가 쏟아 버리더라고요. 먹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짜기에 짜다 했는데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아침부터 화를 내다 보니 또 싸움이 된 거예요.” 부인이 말을 받았다. “당신은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남편이 말을 이었다. “내가 언제?” 부인이 답했다. “당신 형수는 일하면서도 살림을 해 나가는 거 보면 정말 놀랍다고 했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남편이 받



았다. “그 얘기가 왜 그 얘기가?”

그다음 단계에서 남편이 그 얘기는 이러저러한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당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부인이 받아준다면 어렵지만 대화는 그냥 넘어가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이 그냥 둘러대는 얘기로 믿고 끝까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부인은 또 다른 증거를 찾아 가며 남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대화는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남편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반응하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야말로 넘치 말아야 할 강을 건넌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대화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다. 공감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면 된다지만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상호작용적이고 역동적이어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게 대화이다. 대화에는 개인의 사연이 있고 과거 상처가 있으며, 소망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담겨 있다.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는 부인의 마음은 ‘어제까지의 싸움은 잊고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을 된장찌개에 담아 표현한 것이므로 된장찌개가 좀 짜다는 남편의 말을 부인은 ‘그 사랑 안 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야말로 자기 맘인 것이

다. 그리하여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 나도 너 사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화를 내면서 전달하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찌개가 좀 짜네!”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이렇게 복잡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너무도 많다. 부인이 새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웬 옷이야?” 하는 물음에 “왜 나는 옷 같은 것 사면 안 돼? 나는 평생 누더기 같은 옷만 입어야 해?” 하는 반응이 올 때도 있다. 즉 부인은 남편의 ‘웬 옷이야?’에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주부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살아?’ 하는 말로 알아듣고 그 말에 반응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속사정을 모른 남편은 정말 어이없을 뿐이다. 남편의 방어적인 반응도 있다. 부인이 “어머니 언제 오신데?” 라고 묻는 말에 “오래 있진 않으실 것 같아.” 언제 오는가라는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남편의 대답은 물론 부인이 어머니 오시는 것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 속에 내뿜은 말이다. 이렇듯 대화는 표현되지 않는 많은 사연과 개인의 두려움과 상처를 담고 있어서 단순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 말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 과거의 상처를 얼마나 잘 알아채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가?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

“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상대방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관계가 보다 단순해지고 명료해질 수 있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 여전히 실수하고 허우적거리지만 실수조차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게 되었다.”

르므로 다른 대화도 그렇지만 특히 부부 간의 대화는 그 뜻과 의미 그리고 기능이 매우 복잡함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과거 상처가 무엇이며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치유해 주는 과정을 통해 상대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 적어도 '나의 배우자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깊은 신뢰를 확신할 때 된장찌개가 짜다는 말을 그냥 짜개가 짜다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 상처를 이해할 때 내가 짜다고 한 말을 부인은 비난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부인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때서야 “아, 미안!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짜다고 해서 속상하겠네. 짜긴 짠 데 맞은 있어. 물만 좀 넣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짜다는 사실을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는 건강한 대화는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휘되어 나타나는 결과다.

위 사례의 부부는 상담을 계속하는 가운데 각자의 상처를 알아차렸다. 부인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남편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인은 남편이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안 하고 무심한 것 같으면 불안하여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드로 변하고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이쁜 옷도 사 본다. 남편은 무심한 듯하다. 그러나 결코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익숙해졌고 편안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짜다고도 할 수 있고, 웬 옷이냐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반응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인에게는 섭섭함이고, 외로움이고, 억울함이다. 이 부부가 자신들의 강력한 욕구를 알아챘을 때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있음을 더 자주 확인시켜 주었고, 부인은 자신의 두려움이 비난으로 나옴을 알아차리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이야기하여 남편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상대방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관계가 보다 단순해지고 명료해질 수 있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 여전히 실수하고 허우적거리지만 실수조차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게 되었다.

대림주간이다.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를 반성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욕구와 외로움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성가정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본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령쇄신 봉사자들에게 하신 강론

-2014. 6. 1.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스타디움
(61개국 2000명과 이탈리아인 5만명)-



윤영학 아오싱 역삼동성당 ·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평의회 의장단 평의원 번역

“여러분은 하느님 은총의 자판기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 통행료 징수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환영에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대회 관계자에게 내가 '살아 계신 주 예수님'을 무척 좋아한다고 미리 말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에서 성령쇄신 봉사자들과 미사를 드릴 때, 봉헌 후에 잠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고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것과 같이 기쁨에 차서 열정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성령쇄신 ICCRS와 가톨릭형제회에게 여러분과 같이하는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에게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힘을 체험한 성령쇄신의 첫 회원들이 여기에 참석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패티가 여기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쇄신 봉사자 여러분은 주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탄생은 성령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운동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은총의 흐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은총의 흐름이 되십시오.

성령의 맨 처음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우리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사의 다양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쇄신을 생각할 때 교회 자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각기 다르지만 음악의 하모니를 만드는 데는 모두 필요합니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 1서 12장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와 같이 성령쇄신 봉사자 중 아무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가 우두머리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오직 한 분의 우두머리는 주 예수님입니다. 나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쇄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한 힘으로 힘차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풍문으로 아시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성령쇄신 첫 해에 나는 성령쇄신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이 “삼바 학교 비슷한 것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형태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알게 되고 결국 성령쇄신이 교회를 위해 하는 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삼바 학교’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콘크라베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나는 주교회의로부터 아르헨티나 성령쇄신의 영적 보조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성령쇄신은 성령의 기쁨 안에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훌륭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초기 성령쇄신자들은 항상 성경, 신약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중] 예! 그런가요? 안 가지고 계시면, 이 첫 사랑으로 돌아가 항상 주머니에 또는 가방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읽으십시오. 항상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하느님의 백성, 성령쇄신의 백성인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쇄신의 위험은 라이에로 칸탈라메사 신부님이 자주 말하듯이 너무 조직화되었다는 것과 지나치게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도록 놔두는 은총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위험은 하느님의 은총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룹 또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저는 “중”이란 말을 선호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은총의 ‘관리자’가 되어 누가 통성기도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 하라고 청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 은총의 심판자가 아니고 재판기입니다. 성령에 대해 통행료 징수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말린스 문서에 여러분을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가 신학적 사목적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두 번째가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수에넨스 추기경이 쓴 교회 일치와 성령쇄신입니다. 세 번째가 수에넨스 추기경과 헬터 카메라 주교가 쓴 성령쇄신과 사회활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복음화, 영적 교회 일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경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쇄신의 기초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이끄시도록 맡기십시오. 제발 성령을 우리에게 가두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크리스천 각자가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로부터 크리스천 삶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화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충만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사람과 성령세례의 은총을(사도행전의 구절처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모든 남녀를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이 다른 교회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천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인 교회 일치주의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 안에 일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화하는데 필요한 이 일치를 얻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투성이 살을 만지도록 하십시오. 그들 가까이 가십시오. 쇠신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일치는 성령께로부터 오고 삼위일체의 일치에서 태어납니다. 분열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악마입니다. 분열은 악마로부터 옵니다. 모든 싸움에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ICCRS와 가톨릭형제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그룹은 평신도 평의회의 교황청 권한을 가진 그룹이며 전 세계의 쇠신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있을 사제와 주교의 세계회의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고 일치의 표시로 그리고 재능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같은 사무실을 쓰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들이 이미 2017년 희년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즉, 주 하느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느님을 경배하십시오! 성령의 새로운 삶에서 거룩함을 찾으십시오. 하느님 은총의 자판기가 되십시오. 지나치게 조직화하는 위험을 피하십시오.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교회가 항상 움직이는 오순절 아침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그 가난한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상처투성이 살을 만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이끄시도록 맡기십시오. 제발 성령을 우리에게 가두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성령쇄신 안에서 일치를, 삼위에서 오는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세계의 성령쇄신 여러분 모두가 2017년 오순절 축제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과 함께 여러분의 위대한 희년을 함께 지낼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황 방한 이후 한국교회의 새아침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

지난여름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후끈 달아올라 큰 감동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황의 행보에서 단단한 반석, 선한 목자, 가난한 성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을 만나 그에 걸맞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선 주교들에게는 사제들 곁에 가까이 머무르며 용기를 북돋길 촉구했습니다. 또한 신부들에게는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며 아낌없이 봉사하길 에둘러 권고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연대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중산층의 사교모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한편, 성직자들이 세속성에 경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황은 수도자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위선을 행함으로써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계화와 소비주의가 수도자의 청빈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교황은 평신도들에게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형제자매들과의 연대로 드러나므로 인간 성장을 위해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

한 가난한 교회'라는 사도와 우리 신앙선조 시대의 이상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2014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응답 요청자 218명(주교 6, 신부 87, 수도자 64, 평신도 61)과 자발적 참여자 462명(성직자 33, 수도자 23, 평신도 406)의 답변은 교황의 지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국 주교들에게 바라는 개선점으로 대화와 소통 부족, 사회정의 실천 부족, 사목 비전과 리더십 부족, 독선과 권위주의,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꼽았습니다. 또한 신부들이 개선할 점으로 독선과 권위주의, 기도와 영성생활 결핍,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 사치스런 취미활동, 가진 자 위주의 사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의 개선점으로 기도와 영성생활 결핍, 편협하고 일방적인 사고를 선택했습니다. 평신도들에 대해서는 기도와 영성생활의 결핍, 사회정의 실천 부족, 분파적 행동, 이웃과의 반목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래 한국천주교회는 16개 교구, 1,668개 본당, 791개 공소를 지닌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 신자 총수

“ 한 몸인 교회를 위해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답게 인자한 아버지처럼, 수도자는 자기 증여의 봉헌자답게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평신도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효성스런 자식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는 5,442,9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직자로서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지 170년이 되었습니다. 그 뒤 한국천주교회는 2013년 현재 주교 36명, 신부 4,865명, 신학생 1,463명, 수사 1,564명, 수녀 1만173명으로 성직자와 수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전체 신자 중 불과 22.7%만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가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와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전례헌장 47항)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찬례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가톨릭교회교리서 1324항)이므로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한가운데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여기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외형적·양적 성장과 내면적·질적 저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60년대 이후 부정과 독재로 얼룩진 정치상황을 거치는 동안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1코린 4, 11) 이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정신적 안식처와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신자 수가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문제가 일정 궤도에 오른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은 신자, 미지근한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신자들의 세속화 성향 역시 큰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일천한 역사를 지닌 한국천주교회가 '번영하는 큰 교회'로 성장한 데는 1만위가 넘는 신앙선조들의 선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편,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을 내놓고자 하는 백색순교의 각오가 절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몸인 교회를 위해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답게 인자한 아버지처럼, 수도자는 자기 증여의 봉헌자답게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평신도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효성스런 자식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적처럼, 또한 설문 응답자의 선택처럼 성직자는 가난한 이를 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삶을, 수도자는 청빈한 자세로 기도하는 삶을, 평신도는 영성적이고 이웃과 화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의 해입니다. 성직자는 양 냄새나는 목자답게, 수도자는 양들을 희망의 길로 안내하는 표지답게, 평신도는 바른 길을 걷는 양답게 산다면 한국천주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배(淨配)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제안한 국민의식운동이 시의적절한 까닭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에

이태선 베네딕토 둔촌동성당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25년간 교중미사나 저녁미사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틈틈이 청소년 성가, 젠성가, 폐제성가 등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분을 통해 ‘봉사’에 대해 글을 한번 써 보라는 부탁에 “제가요?”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가대 활동이 거의 전부인 제가 생각하는 봉사라는 의미는 “가장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동으로는 조용하고 꾸준히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 형님이신 이태석 신부님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꾸준히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가대 활동이 얼마나 그것들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가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가대를 지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꿈쩍 못하기 때문에 집 식구들에게 미안함 그리고 친구들과의 연락이 거의 단절되기 쉬워 1년에 몇 번 정도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마도 어린 시절 지냈던 성당에서의 영향 그리고 성가대 단원들과 많은 신자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성당 근처 천주교 주택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성당이 제 놀이터였고 거의 매일 성당에서 장난치며 놀고 노래 부르곤 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송도성당을 다녔는데 저보다 세 살 많은 이태석 신부님 덕분에 몇 명만 모이면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화음 맞추어 불러 보고 연극연습 그리고 복사도 하고 어깨 너머로 배운 오르간, 기타 등등.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았던 시절이었고 그때부터 습관이 됐던 성당에서의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에는 제가 음악을 좀 한다고 우쭐거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최

“제가 음악을 좀 한다고 우쭐거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엔 제게 조그만 음악적 달란트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능한 한 그분의 도구로 써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엔 제게 조그만 음악적 달란트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능한 한 그분의 도구로 써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병원에서의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서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성가대 단원 중 한 분은 우울증이 아주 심하여 가끔씩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던 분도 아름다운 성가를 통해 지금은 치유되어 아주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어떤 분은 성가대 활동을 통해 몸의 여러 수치가 개선되는 등 조금씩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는 미사를 드리러 힘들게 성당으로 오시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사 후 많은 분들의 감사와 격려를 통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녁 성가대 활동으로 힘들 때도 많지만 저를 포함하여 성가대 단원들 그리고 신자들의 영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찌면 이것이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청년시절 성당의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한 학생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저요? 저는 인간도 아니죠. 공부도 하기 싫고 부모님 말씀도 듣기 싫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스런 자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어른의 책임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가끔씩 그 아이의 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행동에 앞서 자기가 하느님의 사랑스런 자녀임을 알고 그분께 받은 달란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진정한 사랑을 사랑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대박

김창환 바르톨로메오 신당동성당



14년 전, 약간의 이상을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하고 찾은 병원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와 면담을 끝내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니,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한 친구가 연방 담배를 피워대며 투덜거린다. '왜 하필 내가,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던데 내가 암이라니...'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떠난 소중한 생명들이 하나 둘이겠는가? 그리고 저 친구보다 더 살았고, 손을 넘긴 나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이대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잠이 올 리 없었다. 팔순의 어머니,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옆에 누워 있는 아내,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두 아들, 그렇다고 크게 모아둔 재산도 없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아직 하느님 나라에 갈 여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에게 베풀어 준 덕도 없고, 시간 나면 해 보겠다고 성경 공부도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런 내가 하느님께 내세울 만

한 공덕이 있겠는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본다. 하느님 앞에 내세울 공 하나 없으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으며,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실 하나만이라도 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뿐, 살고 싶다는 애원은 차마 드릴 엄치가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란 평소의 바람만은 간절한 기도로 드릴 수 있었다. 비록 캄캄한 여정이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남들처럼 방황과 원망의 시간으로 세월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로 갈등과 고통의 시간은 끝내자 마음먹으니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다.

다음날 종합병원으로 재진 검 수술 의뢰를 마치고, 그다음 주로 수술 날짜도 잡았다. 수술 사흘 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길고 긴 의료 파업이 시작되었고 수술 날짜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아니 할 말로 하늘은 내 편이 아니었다. 기약 없이 초조한 시간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의료 파업은 계속되었고, 가족은 물론 일본에 사는 지인까지 자기 집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가면 될 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는 투정 어린 조언도 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걱정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 내가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

“신앙의 기쁨! 내게 신앙의 기쁨은 평생 두렵기만 한 존재임에 분명한 그분이 있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게 해 주셨고,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었으며, 정작 막막할 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도 모자라 현세에서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나서, 다음 세상까지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신앙의 기쁨이며 한마디로 내 인생의 대박이 아닐까 싶다.”

는 모습을 보여 드릴 자신과 용기가 없었다. 파업은 3개월을 넘기고서야 끝이 났고 수술도 무사히 마쳤다. 살아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들어간다는 수술실도, 성모님 대신 수녀님 위로라도 받고 들어가겠다고 내 바람이 성모병원이어서 가능하였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으나 10회에 걸쳐 1주일씩 맞는 항암 주사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평소애 군침도 는 밥 냄새는 물론 향수 냄새까지 모두가 역겨워 한 주 내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고 치료 후에도 2~3일 정도는 오로지 링거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렇게 열흘 정도 굶고 나면 기력도 없어지고, 의지도 희미해지며 이대로 누워 며칠만 더 굶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유혹의 순간도 많았다. 그럴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 하나 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뜻을 역행하는 행동이 아프다는 이유로 과연 용납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과 두려움, 어쩌면 하느님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평생을 하느님 눈치 보며 하느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느님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입맛을 찾기 위해 한두 시간씩 차를 타고 고작 해상국 한 그릇 정도의 음식을 찾아 다니기를 여러 차례 했어야 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 횡수를 거듭하면서 일어난 해프닝 하나가 떠오른다. 같은 링거처럼 보이지만 항암제 링거는 포장지 색깔이 조금 달라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링거를 뽑고 병동 안을 돌며 운동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난다. 그때 내 표정이 다른 환자보다는 조금 밝게 보였나 보다. 생각해 보면 나로서는 굳이 죽을상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애초에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마음을 비웠기에 늘 히죽히죽 웃고 다니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살짝 맛이 간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 후로 내게 한 가지 변한 것은 기도 방법이다. 늘, 주님! 하면서 먼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아쉽고 투정에 가까운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여 자녀를 허락하신 것까지, 그리고 남들 누구나 다 가진 흔한 휴대폰 하나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하는 것을 보며, 인생 반 이상을 살고 나서야, 그것도 매 맞기 전에 할 것이지, 꼭 한 대 맞고 나서야 알아채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멧쩍은 미소를 짓는다. 신앙의 기쁨! 내게 신앙의 기쁨은 평생 두렵기만 한 존재임에 분명한 그분이 있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게 해 주셨고,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었으며, 정작 막막할 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도 모자라 현세에서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나서, 다음 세상까지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신앙의 기쁨이며 한마디로 내 인생의 대박이 아닐까 싶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기도로 시작한다. 

거룩한 독서의 충만한 기쁨

이희재 헤드비제 분당 성마태오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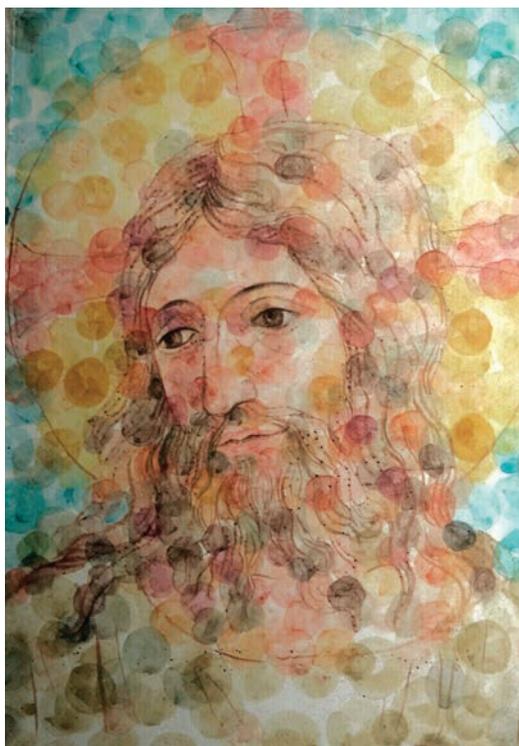
이콘 연구소 졸업작품으로 '성령강림'을 준비 하느라 정신 없이 바쁜 기간이었다. 어느 날 대모님이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할 거라며, 성경 읽는 모임 '거룩한 독서'를 권하였다.

“이렇게 정신 없이 바쁜데,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따로 낼 수 있을까? 매일미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라며 주저하고 있는 나에게, 대모님께서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시며 썰기를 박으셨다.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고,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지날 수 없게 그분께서 내 길에 담을 쌓으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깔아 놓으셨네.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으시고, 내 머리의 관을 치워버리셨다네. 사방에서 나를 때려 부수시니, 나는 죽어가네. 그분께서 나의 희망을 뽑아버리셨다네.” (욘 19,8-10)

이상한 힘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욘기를 읽는 주간에, 스텔라는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욘과 견주어 보았을 것이고 위로를 받았으며, 욘기 안에서 보여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찾았을 것이다.

성당이라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무수히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딪치는 시련들,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건사고들... 나 역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시련을 피해 보려고 다른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냉담상태가 되기도 하며, 간신히 극복하기도 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숙제들을 풀어 가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

“ 그때마다 ‘아! 나는 그런 구절을 그냥 지나치고 읽는구나. 나는 이런 구절을 마음에 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의 색깔이 어떤 종류의 색이었나를 깨닫게 되기도 한다. ”

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살 2,13)

그런데 다른 교우들과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여태껏 지식으로 배우는 성경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어느 신부님 강론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 는 시간이고,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임은 거룩한 독서 라는 이름처럼 거창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다.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묵상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그동안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성경 구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게 말하는 모임이다. 특별히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각자 자신의 묵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묵상에 대해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면 되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정해진 성경 구절을 읽고 왔지만, 와 닿은 성경 구절은 서로 달랐다. 가끔은 저런 구절이 있었나? 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 읽을 정도로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말씀의 구절들을 다른 사람은 놀라운 시선으로 찾아낸다. 그때마다

‘아! 나는 그런 구절을 그냥 지나치고 읽는구나. 나는 이런 구절을 마음에 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의 색깔이 어떤 종류의 색이었나를 깨닫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점점 그 나눔의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조용히 듣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짧은 묵상이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그 다양한 삶들이 너무도 풍요롭게 느껴진다.

가끔은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 혹은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 갈등의 원인이 나였음을 깨닫게 되며,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매주 한 걸음씩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만나게 된다. 이런 기쁨과 희망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시작기도다.

미사 중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 나이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지만, 정작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 같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아는 순간

현문학 스테파노 상계2동성당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힌두교 전설에도 있다.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선물이 미리 주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나 꿀볼건이었던지 하루는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인간의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한다. 이때부터 인간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천사들은 회수한 행복을 어디에 숨길까를 고민한다. 깊은 바다 속이나 높은 산 위에 숨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한다.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속에 꼭꼭 숨겨진 행복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스려 행복을 찾는 가르침은 어느 종교에나 있다. 불교 원로 스님들도 인터뷰를 해 보면 '참나'를 찾거나 '자리이타(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경지)'를 주로 강조한다.

여느 사람처럼 영원한 행복을 찾아 내가 성당 문을 두드린 것은 18년 전 일이다. 회사 일로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였다. 황량한 베이징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둘러보던 중 고색창연한 건물이 심금을 울렸다. 알고 보니 이승훈 베드로 신부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성당이었다.

바로 6개월간 교리를 공부하고 온 가족이 함

께 세례를 받은 후 교우들과 어울렸다. 같이 세례를 받은 교우 중에는 구원의 이르는 길을 거의 다 달린 것 같은 모범 신자도 많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인 성당 주임신부님이셨던 김영환 몬시뇰께서는 독립운동 당시 만주로 이주한 후 수십 리 떨어진 교회에 매일 새벽미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새벽 미사를 빠지는 날에는 밥도 못 먹었다며 엄격한 신앙생활을 주문했던 것이다.

당시 나의 신앙생활은 중국 고사 중에 '동가식 서가숙'을 떠올리는 수준이었다.

'태평어람'에 나오는 제나라 시절 혼기가 찬 처녀 이야기다. 처녀의 집에 동쪽에 있는 동가와 서쪽에 사는 서가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오는데 조건이 문제였다. 동쪽 신랑감은 재산이 많은데 추하게 생겼고 서쪽 신랑감은 인물은 훌륭한데 재산이 없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부모는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쪽 저고리를 내리고 서가로 가고 싶으면 왼쪽 저고리를 내리라고 했다. 처녀의 결정은 놀라웠다. 양쪽 저고리를 다 내린 것이다. 놀라는 부모에게 처녀가 한 말이 그 유명한 동가식 서가숙이다. 낮에는 동가에서 살고 밤에는 서가에 가서 자겠다는 이른바 양다리 전략인

“태초에 창조 섭리를 알아가는 게 참나를 찾는 일인데 세상사에 찌든 나로서는 어려운 개념이다. 하느님이 만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다. 행복도 주어졌다. 생각하는 대로 꿈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져 있으나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남과의 비교 등으로 스스로 안 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셈이다.

성당을 나가는 것도 즐거웠지만 골프 약속이 있으면 미사를 빠지기도 했다. 성당에서는 열심히 하느님을 찾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동시에 찾아가는 생활이었다. 성당에서는 하느님을 섬기지만 성당 문을 나서면 술과 운동과 유희를 즐기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마음껏 마시고 놀면서도 죽고 나서는 천국에 가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꼴이었다.

귀국한 다음에는 아예 냉담교우로 분류됐다. 성당이 지적이었는데도 미사를 외면했다. 일요일마다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일의 특수성을 핑계 삼았다.

하루는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다. 일부러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셨는데 내 얼굴은 술로 별개진 상태였다. 그때도 회개를 못했다.

옆 동네로 이사를 간 후에야 회개라는 의미를 되새겼다. 등산을 가다가도 회개라는 목상거리가 생각나면 오던 길로 되돌아 가 보기도 했다. 나이 오십 줄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는 의미가 남달랐다. 다시 성당으로 갔다. 집사람이 독서 봉사를 권유했다. 그날부터 두말없이 성경을 펼쳤다. 처음 읽을 때는 6개월이 걸렸고 두 번째는 3개월 걸렸다. 영어로도 보고 중국어도 읽어봤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현존하심을 몸으

로 느꼈다.

지금도 말씀은 바로 네 옆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어설픈게 아는 순간 행복도 멀리 있지 않아 보였다.

레지오 활동도 했다. 동네 교우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 주말에 봉사도 하고 막걸리도 함께 마셨다. 그렇지만 베이징 때와 달라진 점은 미사를 빼먹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이다.

레지오에서 얻은 최고 선물은 묵주기도였다. 매일 20단을 목표로 하다 보니 잡념도 줄었다.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 주로 걸으며 묵주기도를 한다. 단수 채우기에는 그만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온전히 바치는 기도는 아니다. 분심 때문이다. 분심은 몸의 소리, 마음의 소리, 정신의 소리라고 한다. 하느님께 모든 분심과 고통과 기쁨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들 어주실까 하는 의심도 든다.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 다 들어 주신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만이 앞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내 생각 내 꿈일 뿐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느님 사랑을 찾아 보지만 일치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과 일치할 때 정신은 더 맑아지고 집중되며 가슴은 벅차오르고



영혼은 기뻐 뿔다는 경험을 하고 싶지만 언감생심이다. 분심 때문에 하느님에게는 접근 불가능해 보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쉬고 싶어서 다급해 하듯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데 나의 갈망이 부족한 탓이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요즘은 하느님 나라의 완전함을 많이 묵상하는 편이다. 태초에 창조 섭리를 알아가는 게 참나를 찾는 일인데 세상사에 찌든 나로서는 어려운 개념이다. 하느님이 만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다. 행복도 주어졌다. 생각하는 대로 꿈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져 있으나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남과의 비교 등으로 스스로 안 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소중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이에게 정성을 다하기 마련이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전 세계가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만을 위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원리다.

자신을 내놓는 수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를 내어 드리는 가운데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수련을 더 하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근데 하느님 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참 어렵다. 이웃에 관심을 나타나는 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데 왜 근엄하게 무게만 잡고 살아가려 하는지 내 자신이 부끄럽다.

특히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마태 7,26-27 참조)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짱하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통해 일상에서 견디는 힘을 얻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실 거라는 조바심 없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여유를 간직하고 싶다. 늘 기도를 통해 깨어 있는 삶을 살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1년
아쉬움만 남깁니다.
그러나
모두 감사와 기적의 날들이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번 한 해
보다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채워 보렵니다.
작은 빛으로
우리들 마음에 내려오시는 그분과 함께...

서원만 벨라도 대구대교구 상인동성당 · 대구가톨릭미술인회 부회장

회칙 「생명의 복음」Ⅱ

4장 '인간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 제4장은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주제로 “인간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향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전 장까지 죽음의 문화와 그에 따른 생명윤리적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 건설을 위한 전망을 매우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언급한다.

1. 생명의 백성

무엇보다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1요한 1,1)이며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셨던”(1요한 1,2)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생명의 백성’이라는 새롭고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는 교회는 생명을 선포하고 기리며, 생명에 봉사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일깨운다. ‘생명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봉사해야 한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도록 파견되었다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가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임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인간에게 주셨고 이 복음으로 인해 인간이 변화되고 구원되었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다.

2. 생명의 복음 선포

생명의 백성들이 선포해야 할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 회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며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이다. 이 같은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백성들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성령의 선물로 하느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어졌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러므로 생명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우리 생명의 놀라운 새로움을 증언해야 한다.

3. 생명을 경축함

회칙은 생명의 복음 선포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에 대한 경축이며 생명에 대한 찬미와 감사이며 생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생명을 경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야 하는데 이를 ‘관상적 시각’이라고 명명한다. 관상적 시각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생명이 깊은 의미를 바라보게 하고 생명의 절대적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각으로 모든 사람 안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만남과 대화와 연대에 대한 부르심을 일깨운다.

생명의 복음을 경축하는 방법은 첫째, 기도를 통한 경축이다. 매일의 기도 속에 개인으로, 공동

체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함으로써 경축한다. 둘째는 전례주년을 통한 경축이다. 전례 거행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경축한다. 셋째는 토착화된 문화 안에서의 경축이다. 여러 다른 문화와 민족들의 전통과 관습 속에 존재하는 풍부한 행위와 상징들을 평가하고 선용함으로써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백성들도 생명에 대한 존경과 열망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는 매일의 삶속에서의 생명의 복음을 경축하는 것이다. 생명의 선물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며 생명에 대한 수용이다.

4. 구체적 삶에서의 생명에 대한 경축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생명에 대한 경축은 생명을 위한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시대에 이 생명을 위한 사랑의 봉사는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 필요성은 이미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에서 시작한다. 생명에 대한 사랑의 봉사의 형태는 개인적인 증거, 다양한 자원봉사, 사회활동, 정치적 투신 등 포함된다. 이 같은 사랑에 찬 생명에 대한 봉사는 우선적으로 모든 생명, 특별히 모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호스피스 돌봄, 낙태 후 치유 사목, 미혼 모자를 위한 사목, 자살예방활동, 프롤라이프 활동, 가정간호활동, 새 생명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운동을 낳는다.

5. 생명에 대한 경축의 시작인 가정

교황은 또한 ‘생명의 영역’인 가정을 힘주어 강조한다. 생명을 맞아들이고 양육하며, 부양하고, 병들 때 보살피 주는 곳은 ‘생명의 성역’으로서의

가정이다. 생명의 성역으로서의 가정은 이러한 가치들에 걸맞고 또 호의적인 사회적 환경과, 가정의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증진시키는 정책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6. 새로운 문화를 향하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현대 사회의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는 참다운 문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즉, 진리와 생명, 사랑의 힘이 합해짐으로써 인간 자유가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생명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문화적 변모는 모든 개인, 특히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성의 가치를 인간 발전의 측면에서 인식하며, 고통과 죽음의 신비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생명의 신비에 특별히 가까이 다가서 있는 여성들, 생명의 수호자가 되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여 주도록 부름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과업이 맡겨져 있다고 말한다.

나오며

마지막으로 교황은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위한 우리들의 숭한 노력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단식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이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마태 4,1-11 참조) 모든 가정과 모든 믿는 이들이 자발적 활동과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도우심에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과업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줄 위대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영현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매리지 엔카운터 부부일치운동

잘 사는 부부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담·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ME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대표봉사부부와 담당 신부님과 인터뷰를 하던 날, 비가 온 뒤라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입김까지 날 정도로 추웠습니다. 충무로의 대로변을 따라 걸어 고즈넉한 골목에 들어서니 오래되어 보이는 정겨운 붉은색 벽돌건물이 보였습니다.

장충동에 위치한 베네딕토 회관은 ME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ME를 위해 봉사하는 최준웅 바르나바 신부와 대표부부인 이제빈 베드로 형제와 윤봉희 스킨라스티카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ME단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대표부부입니다.

Q 매리지 엔카운터는 무엇을 위한 어떤 단체인가요?

Marriage Encounter를 줄여 ME라고 칭하는데 알파벳 그대로 '엠이'라고 발음합니다. 가톨릭에서 부부 간에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창안된 프로그램으로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부부일치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1950년대 말, 스페인에서 청소년 사목을 하던 가브리엘 칼보 신부가 많은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원만한 가정의 자녀들이 원만하게 성



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이후 196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쌍의 부부들과 함께 최초 매리지 엔카운터 주말에 참가하셨습니다. 그 계기로 현재 세계 57개국에서 '현대 혼인생활의 신비'라는 애칭을 얻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주말은 지난 1976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여러 사제들과 수녀들, 많은 미국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첫 주말은 1977년 3월에 마련됐습니다. 이후 매주 첫 주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3859회에 걸쳐 8만8522쌍의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Q ME에 참여하는 부부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ME 또는 첫 주말이라고 칭하는데 부부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ME를 신청하게 되면 3부부와 1명의 신부님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총 44시간을 함께 합니다. 2박3일 동안 총 7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여한 부부는 첫 주말 동안 가장 먼저 부부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 터놓고 나눕니다. 긴 시간을 오로지 부부만을 위해 생각하고 나누는데 대부분의 부부는 이때 그동안 몰랐던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시간은 서로에 대해 감사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쉽게 말해 부부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다툼을 벌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 대화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그렇다고 ME는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참가한 부부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ME 주말 중에는 부부들이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찾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욱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줍니다. 통상적으로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일요일 오후 6시에 마치며 숙식이 제공됩니다.

Q ME는 어떤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로 어떤 부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나요?

ME주말은 결혼 문제 상담소가 아닙니다. 그룹 토의나 카운슬링도 아니며 또한 종교교육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결

혼의 재만남을 원하고, 혼인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은 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겁니다.

가령 신혼이나 연애시절처럼 되돌아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부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개선하고 싶어 하는 부부나 실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도 참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 때문에 간혹 ME에 참여한 부부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 ME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와 개신교를 포함해 타 종교인들이나 종교가 없는 부부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Q ME는 반드시 3쌍의 부부와 신부님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ME 주말은 성직자, 수도자나 다른 종교인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 방법은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와 성직자의 관계에서, 혹은 성직자와 사목(선교)대상자 사이에서도 이 사랑의 대화방법은 적용됩니다. 곧 ME는 부부와 성직자가 함께 하는 것이니 혼인성사와 성품성사가 함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Q ME주말에 참여한 부부들이 이후에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ME를 다녀왔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 무덤덤해진 혼인생활이 저절로 풍요로워지진 않습니다. 항상 신혼시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M.E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지만 ME주말에서 경험한 배우자의 재발견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의지를 더욱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ME의 가치관을 유지하도록 본당 공동체에 소속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부들이 ME주말을 경험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성가정의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Q 이제민 베드로 형제와 윤봉희 스콜라스티카 부부는 22번째 한국 ME의 대표 봉사 부부입니다. ME 첫 주말을 신청했던 때가 언제이며 신청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 우리 부부는 1990년에 첫 주말에 대해 알았고, 1년 뒤인 91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였고, 아내인 윤봉희 스콜라스티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저와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며 관계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눈만 봐도 아는 사이였던 신혼 때로 돌아가기 위해 첫 주말을 신청했습니다. 첫 주말을 다녀오니, 보수적이던 남편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첫 주말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유

지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첫 주말을 통해 재결심하고, 신혼 때처럼 잘 살아보아겠다고 느끼면서 무엇보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 남편으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그동안 밤늦게 까지 일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더 나은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똑같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Q ME 주말의 대표부부로 봉사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첫 주말에 참여한 부부들이 2박3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행복한 표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들어올 때와 나갈 때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간혹 어떤 부부는 들어올 때부터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환하게 웃기도 하고, 나갈 때는 행복한 표정으로 나갑니다.

또 첫 주말에서 만났던 혹은 봉사하는 부부들끼리 모임을 자주해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른 부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혹은 아까 실수에 대해 타박한 일은 결국 나를 위해 한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다가도 다시 누그러지게 됩니다.



Q 그동안 ME 대표부부 봉사를 통해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왔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일단 ME에 참여하고 싶은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조건은 결혼한 지 5~10년 정도 된 부부에게 추천합니다. 또 마음으로 부부로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부부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주변 일에 대해선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자동차를 오래 타다보면 기름이 떨어져 마침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적절하게 기름을 채워 줘야 다시 자동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보면 어느 순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기적절하게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ME 첫 주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www.mekorea.or.kr)를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Q 사제로서 대표봉사를 역임하신 최준웅 바르나바 신부님께서도 수많은 부부들을 봐오시면서 특별히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부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부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나 역시 올바른 사제로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ME는 우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작은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들이나 사제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소홀해지기도 하고, 사제들은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답답함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부는 한 번의 결혼으로 60년을 함께 살게 되는데, 성당에서 받는 혼인강좌는 단 8시간에 불과합니다. 고작 8시간을 준비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부로 살아가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화의 방법론을 배우고, 티격태격해도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가 잘 사는 것이 결국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충 바오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순교자



윤지충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제사 문제로 순교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윤지충 바오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순교복자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윤지충 바오로는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한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라는 점입니다.

둘째, 한국 초대교회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신앙인으로 조선정부의 정교합일적인 통치원리에 저항하여 정교 분리의 원리를 주장한 순교자라는 점입니다.

그는 비록 제사 문제로 사회 의식적 측면에서 참여한 충들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또 다른 의의를 묻어 버리고 단순히 제사를 거부한 순교자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충은 전라도 진산군 장구동에 거주하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우용'이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전주에서 순교한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그의 아우입니다. 본래 그의 조상들은 전라도 해남에 살았는데 그의 가문에서는 벼슬에 오른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이름을 남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윤지충의 아버지 윤경은 의원을 생업으로 삼고 살다가 결혼 후 진산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습니다. 본관이 해남이며 유명한 화가 윤두서의 증손자인 윤지충은 아버지 윤경,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의 맏아들로 전주부 양소면에서 태어났습니다.

“ 윤지충은 지극한 효성의 발로로 드리는 제례를 무조건 미신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토막에 불과한 목수의 제작물인 신주를 부모처럼 모시고 제사를 지냄이 이치에 맞지 않고, 부모의 혼이 신주에 붙어 있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양반의 법도라면 차라리 양반의 법을 버릴지언정 양심상 하느님의 올바른 법을 어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윤지충 바오로는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단정한 품행으로 유명했으며 학문에 있어서도 평판을 얻어 칭송이 자자했는데 그가 25세가 되던 해인 1783년 진사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자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사가 된 이듬해인 1784년 겨울에 윤지충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명례방 김범우 토마스에게서 '천주실의'와 '칠곡'을 빌려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천주교 교리를 대강 짐작은 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던 다음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 읽기는 했어도 믿지는 않았기에 1785년 을사추조 적발 사건 때에는 가지고 있던 교리서들을 모두 불태우거나 물로 씻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86년 고종 사촌형인 정약종에게서 천주교 교리 전반에 대해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머니와 동생 윤지현은 물론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교우들과 접촉하거나 드러나게 교회활동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엄밀한 신앙 실천 생활로 깊은 신심을 지니고 있었음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90년 윤유일이 북경에서 가져온 구베아 주교의 사목교서에는 조상제사 금지조항이 들어 있었고 한국교회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건설 공로자들인 양반 지식인들도 제사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림의 반발과 가문과 가족들의 박해를 받는 와중에 제사 문제로 지식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위기였던 이런 때 복자 윤지충 바오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집안에 모셨던 신주를 불살랐습니다. 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1791년 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상례를 치르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는 모친상을 입고 지극한 애통함으로 효성을 다해 모든 상례의 절차와 예식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상례에 따른 제사만은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친척과 동료들은 비난하고 이 소문은 천주교를 반대하는 세력의 선봉인 홍낙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때 윤지충 바오로의 편에서 이를 따라 함께 해 준 사람은 그의 외사촌인 복자 권상연 야고보뿐이었습니다. 권상연 야고보는 사헌부 지평을

지낸 권기의 고손자로서 아버지는 권세학, 어머니 전주 이씨이며 조상대대로 공주 탄방에서 살다가 고조부 권기 때에 진산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윤지충의 외사촌으로 이웃에 살며 윤지충이 탐독하던 ‘천주실의’와 ‘철극’을 빌려 보고 신앙에 눈을 떴고 윤지충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이때 윤지충과 함께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윤지충과 동일한 신앙고백으로 순교하여 윤지충과 함께 시복되신 분이십니다. 천주교 반대 세력의 선봉인 홍낙안은 진산 군수 신사원에게 편지를 보내 윤지충과 권상연을 고발하고 다시 좌의정 채세공에게도 고발해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좌의정 채세공은 전라감사 정민시에게 체포하여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지충은 광주로, 권상연은 한산으로 각각 몸을 피했습니다. 이를 안 관원들은 이들 대신 윤지충의 숙부인 윤증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이를 안 윤지충과 권상연은 이내 진산 관아에 자수하여 진산 관아에서 그리고 전주 감영으로 이송되며 심문을 받았습니다.

윤지충은 그의 유일한 동지인 외사촌 권상연과 함께 옥고를 치르며 심문을 당하는 시련 중에 당당히 순교의 길로 나아간 장렬한 모습은 여러 경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직접 기술한 공술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진면목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 문제가 중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쟁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사 문제는 의례 논쟁으로 하늘님의 호칭을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배공 제조로 공자를 공경하고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문제인데 이 중에 배공 제조가 중

교의식인가? 순수한 민간의식인가가 그 초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은 신주를 조상처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불가한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주를 조상처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안 되는 까닭을 윤지충은 그의 공술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 중에 제4단계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부모가 신주 안에 계신다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주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주들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것은 저와는 살이나 피나 목숨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낳고 기르는 수고에 아무런 몫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영혼은 일단 이 세상에서 나가면 그런 물질적인 것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명칭은 아주 위대하고 매우 존경받을 만함 그 무엇인 만큼 어떤 일꾼이 만들고 꾸민 물건을 감히 가져가다가 제 부모로 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른 이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양심은 그것을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로 인하여 양반 호칭을 박탈당한다고 해도 하늘님께 대하여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윤지충은 부모와 조상의 신주가 목수가 만든 한 조각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것을 부모처럼 대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충은 지극한 효성의 발로로 드리는 제례를 무조건 미신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

토막에 불과한 목수의 제작물인 신주를 부모처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 이치에 맞지 않고, 부모의 혼이 신주에 붙어 있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양반의 법도라면 차라리 양반의 법을 버릴지언정 양심상 하늘님의 올바른 법을 어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드신 부모님께도 음식을 드리지 않는 법인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듯 하는 것은 허식이요 가식적인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윤지충의 공술서는 이 모든 이치를 떠나서 한 개인이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든 말든 그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국가가 간여할 일이 아니며, 또 실제로 조선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이 그렇다고 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규정대로 지내지 못하는 양반들도 엄한 책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신주를 모시지 않고 죽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제 집에서 천주교를 충실히 신봉하는 것은 결코 국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 듯합니다.”고 했습니다.

윤지충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 시민이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왜 양반인 내가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반정부의 죄가 되는가? 둘째, 신주를 모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 제사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종교적 신앙생활로서 국법에 어긋남이 없는데 왜 국법으로 다스리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가 분명 양반들만의 전유물이며, 조선정부가 유교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는 ‘정교 합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유교 국가에서는 국가 밑에 종교가 있게 되어 종교가 국가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정부에서 정치와 종교는 혼동되었고, 이 정교 합일 현상은 천주교에 대한 한결같은 적대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쟁에서도 종교를 빙자한 정적 타도의 구실로 척사를 논하여 당쟁인지 척사인지 구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윤지충 바오로는 이러한 문화적인 정치적 배경에서 그의 순수한 신앙을 고백했고, 결국 정승인 채세공의 간청으로 참수형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791년 12월 8일 오후 3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의 나이 33세였으며 권상연은 41세였습니다. 그가 죽은 형장의 피에 영긴 수많은 기적으로 인하여 조선 신자들의 손수건에 그 피가 적셔져 북경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각자적인 지식인들이 제사 문제로 교회를 떠나갈 때, 참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외롭게 남아 한국천주교회를 지킨 위대한 첫 순교자였습니다.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앙과 교회공동체



인간의 보편적 본성으로 흔히 종교심성을 든다. 이는 곧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자 영성적 존재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인간은 나와 내면적 자아의 관계, 나와 외면적 타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초월적 신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존재임을 뜻한다. 인간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지향을 통해 삶의 근원과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물론 긴 혀를 이리저리 내둘러 목탁 소리를 내는 소, 또는 스님이 예불하는 동안 곁에 엎드려 있는 개를 예로 들면서 이를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이한 행동을 종교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물의 보편적 본성이라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은 신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영성적 존재이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 역시 오래전부터 신앙을 표출하며 살아왔다. 수목신앙과 암석신앙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수목신앙은 고조선 신화의 환웅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신단수에 내려왔듯이 우리 신화 주인공들이 모

두 나무나 숲으로 강림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나무는 신의 하강처이자 거처이며 제사처가 되었다. 솟대는 《삼국지(三國志)》〈동이전(東夷傳)〉의 소도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도는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천신을 제사하는 별읍(別邑)으로 죄인이 피신하여도 끌여낼 수 없는 성스러운 구역이었다. 제관인 천군이 솟대에 드리는 천신제가 오늘날 마을공동체 단위로 드리는 동제의 원형이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벽수·수살목·하르방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장승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짝이 되어 동구밖에 서서 잡귀를 쫓는 수호신이었다. 그리고 서낭당 또는 성황당이라 불리는 당목(堂木) 역시 마을 수호신의 거처였다. 당목은 우주목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마을의 중심으로서 동제를 올리는 주안처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암석신앙은 부여 신화에 등장하는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가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하여 마침내 큰 돌 아래에서 금빛 나는 개구리 형상의 금외를 얻었다는 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

다. 암석이 자식을 비는 기자석(祈子石)으로 신앙의 대상물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암석신앙의 대표적인 신체로는 선돌, 선바위, 입석, 갓바위 등으로 불리는 남근석(男根石)을 들 수 있다. 마을의 평지나 산등성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기자석은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인이 찾아가 치성을 드리던 곳이었다. 남성 상징인 석상의 코를 떼어다 빵아 먹으면 양기를 받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도 암석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늘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신부가 돌하르방의 코를 잡고 사진 찍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의 발로다.

신앙은 신을 믿고 받드는 일이다. 동양의 '宗教'는 근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며, 서양의 'Religion'은 라틴어 'Religio'에서 나온 말로 다시 읽는다(Re-legere)는 뜻인데, 반복되어 낭송되는 종교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어원은 종교의 조건으로 가르침과 의례와 조직을 꼽는 것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관에 의해 일정한 형식의 의례가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수목신앙은 개인의 기복을 위한 암석신앙보다 종교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목신앙 역시 가르침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교의 본질에 맞닿아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로써 본다면 하느님을 믿고 받드는 가톨릭 신자의 신앙과 교회공동체의 참모습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가톨릭 신자는 가르침의 측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교리를 숙지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가톨릭 신자는 의례의 측면에서 개인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교회 차원의 공적인 경배이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미사를 비롯한 7성사와 준성사 등의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자는 조직의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보편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남녀노소, 지위고하, 동서고금, 혈연·지연·학연을 초월하여 보편적 종교로서의 가톨릭(Catholic)이라는 어의를 온전하게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라는 <사도신경>의 구절과 부합하는 대목이다.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이 1997년에 공포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이며,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로서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곳이다. 교회를 뜻하는 라틴어 'Ecclesia'는 불러 모은다는 뜻이고, 영어 'Church'는 주님께 속한 모임이라는 뜻으로 주님 백성의 집회를 의미한다. 즉 교회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 모은 양 떼(루카 12,32)들이 머무는 곳으로 예수의 참 가족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한 15,5)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공동체는 교계제도에 의한 주교, 사제, 부제 등의 성직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인 평신도로 구성된다. 교회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는 말씀에 따라 성

“교회공동체의 지체인 평신도들이 자리적(自利的) 편협함을 깨고 나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타적(利他的) 포용심을 지닐 때,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예언직·왕직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천주교회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평신도의 손으로 세워졌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779년(정조 3년)경 권철신·이벽·정약전·김원성·권상학·이충익·이윤하 등의 남인 학자들이 참여한 주어사 강학회에서 파견한 이승훈이 1784년 베이징의 베이탕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1794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까지 평신도 공동체인 명도회를 결성하여 신앙을 키워 나갔다. 복자 정약중 초대회장이 지은 한글교리서인 『주교요지(主教要旨)』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그야말로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지고 다져진 교회공동체였던 것이다. 오늘날 평신도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역할이 부단하게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교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고통 받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 몸의 건설에 협력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806, 872항) 즉 하나의 머리 아래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평신도들은 누구든지 살아 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그 끊임없는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부름 받고 있는 것이다. 『교회헌장』 33항)

따라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병들고 힘없는 지체를 배려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움직임이 교회 밖으로 확산될 때, 사회의 복음화가 실현될 것임은 자명하다. 교회공동체의 지체인 평신도들이 자리적(自利的) 편협함을 깨고 나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타적(利他的) 포용심을 지닐 때,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견결한 신앙은 그 옛날 나무와 돌을 향해 드렸던 기복적인 청원기도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리라. 교회공동체를 지탱하는 평신도의 지향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가 시의적절하다.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여러분의 사도직이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교회의 사명 수행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2014.8.16. 평신도 사도직단체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 중)

김문태 할라리오 가톨릭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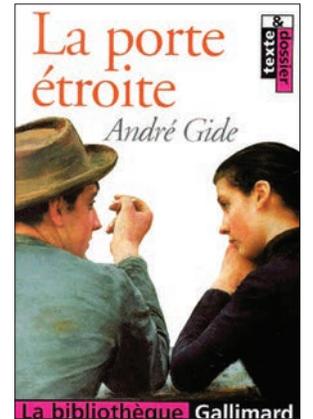
좁은 문 - 앙드레 지드

신성함은 의무 아닌 기쁨

“신성함이란 결코 비싸게 치러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찾아야 할 기쁨인 것이다.”

신과 가까워지거나 영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1869~1951)가 쓴 <좁은 문>은 지드가 3년에 걸쳐 수없이 포기하고 재시도를 거듭한 끝에 탄생시킨 작품이다. <좁은 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지드에게는 비난과 찬사가 동시에 쏟아졌다. 비난하는 쪽은 신성을 모독했다고 몰아세웠고, 찬사를 보내는 편은 종교의 구태를 벗겨냈다는 평가를 내렸다.



<좁은 문>은 주인공 제롬과 두 살 위 사촌인 알리샤와의 관계를 통해 신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윈 제롬은 두 명의 외사촌 알리샤와 줄리엣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알리샤는 정숙한 반면 줄리엣은 활발한 성격을 지닌 소녀였다. 언니 알리샤는 어머니의 불륜을 알게 된 이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과도하게 신앙에 집착한다.

어느 주일미사 때 제롬과 알리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론을 듣게 된다. 강론은 신약성경 마태오복음 7장 13에서 14절에 나오는 구절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이 구절은 제롬과 알리샤의 전 생애를 좌우하

는 화두가 된다. 알리샤를 사랑한 제롬은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길에 이르듯 노력한다면 알리샤와의 사랑이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 제롬은 알리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알리샤는 받아주지 않는다.

얼마 후 군에 입대한 제롬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자 알리샤는 사랑의 답장을 보낸다. 하지만 그 사랑은 편지 속에서만 가능할 뿐 실제로 만나면 알리샤의 태도는 예전과 변함이 없다.

알리샤는 늘 결혼하자는 제롬에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며 청혼을 거절한다. 알리샤는 스스로 지상의 사랑을 버리고 ‘좁은 문’을 거쳐 영적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걸으려 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알리샤는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고 제롬은 그녀의 일기를 보게 된다. 일기에는 “하느님이시여, 다시 한 번 그분(제롬)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글이 남아 있었

다. 그녀는 죽음 직전까지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했으면서도 제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리샤의 마음이 온전히 담긴 일기장을 건네받은 제롬은 평생토록 그녀를 가슴에 품은 채 홀로 살아간다.

봉건적 종교관에 대한 의문

유려한 문장과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쓰여진 이 소설의 밑바탕에는 종교적 윤리와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깔려 있다. 이 소설이 나온 20세기 초는 기존의 전통적 종교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반목과 충돌이 극심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인간의 개성이라는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과 본능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는 새로운 조류가 유럽에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좁은 문〉의 저자 앙드레 지드 역시 당시 유럽의 여느 가정에서처럼 엄격한 청교도식 교육을 받고 자란다. 하지만 명민했던 지드는 청교도식 교육에 의문을 던지며 새로운 가치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바로 소설 〈좁은 문〉을 탄생시키는 동력이 된다.

지드는 이 소설을 집필하고 나서 “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야기는 왜 아름답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만약 제롬과 알리샤가 부르주아 집안의 자제들이 아니었다면, 그리하여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제롬과 알리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과연 신이 원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물론 작품 속에서 지드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그는 알레고리를 통해 보

여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작품을 읽으며 그가 하고 싶어했던 말을 깨닫게 된다. **지드는 제롬과 알리샤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릇된 종교관이 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임을** 말하고자 한 그의 의도를 느끼게 된다.

이 소설에 대한 논란이 격심했을 때에도 지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좁은 문〉의 서문에 “이 책을 통해 나 개인의 의견을 찾으려 하면 길을 잃게 마련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할 계제가 아니다. 내 역할은 독자로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품이 ‘풍자’와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당시 부르주아들의 생활과 도덕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에 일침을 가하는 것은 깨어 있는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지드는 순응만을 강요하는 종교적 독단에 반기를 들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개인을 꿈꿨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인간의 삶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지드가 비판하는 대상은 알리샤이다. 당시의 관념상 영웅주의적 죽음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는 그녀의 죽음은 〈좁은 문〉이라는 소설 안에서는 불필요한 오만으로까지 읽힌다. 소설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그녀의 편지는 정신적이며 신성하고 순결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지나친 것이며 그녀의 선택은 고통과 비애만을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신이 원하는 죽음도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으며, 모두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지드는 알리샤의 교조적 종교인식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절대 조롱이나 조소가 아니다. 그것의 본바탕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사실 앙드레 지드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다. 자신과 사촌 누이이자 아내인 마들렌의 이야기를 소설에 차용한 것이다. 비극으로 끝난 결말을 제외한 도입부의 이야기와 편지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풍자와 비판의 시작은 작가가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재발견한 종교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진정한 성스러움이란 현실적 삶을 경멸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사랑을 무시하지도 않는 것이다. 진정한 신비주의자란 세상의 모든 것이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알리샤는 천상에 대한 동경보다는, 지상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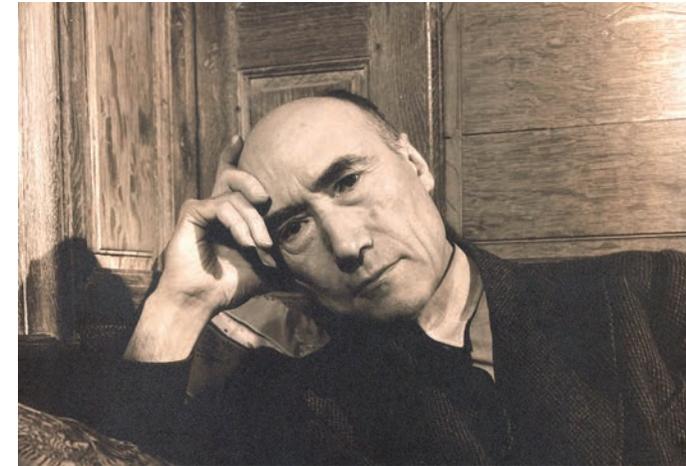
지드가 비판하는 알리샤의 또 다른 오류는 고통과 비애에 대한 갈망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스스로 박탈하는 기이한 염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염원은 그녀에게 있어서 정신적 삶의 원칙이며 종착점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알리샤의 실패한 삶을 통해, 신성함이란 결코 비싸게 치러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찾아야 할 기쁨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결국 알리샤가 헛되이 찾으려 했던 신성함이란 인간적 사랑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치게 의지적이고 금욕적이어서 진정한 성스러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작가는 금욕을 통해 영혼의 결합과 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 즉 ‘좁은 문’ 앞에 두 주인공을 서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보여 주면서 봉건적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다.

노련한 이야기꾼인 작가는 완전한 사랑을 향

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묻는 것이다.



앙드레 지드 자신의 이야기

지드는 1869년 11월 22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파리법과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청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1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더욱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8세 때부터 문학에 빠지면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된다. 평생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던 사촌 누나 마들렌은 그에게 예술혼을 유발시키는 평생의 동반자였다.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1893년의 아프리카 여행이었다. 아프리카의 작렬하는 태양과 야성적 풍토는 지금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엄격한 중세적 윤리에서의 해방을 가능하게 했다.

1894년 어머니가 죽자 앙드레 지드는 첫사랑이었던 마들렌과 결혼을 하고 영향력 있는 문학 평론지 〈누벨 르뷔 프랑세즈〉를 창간하면서 프랑스 문단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었다. 

허연 바오로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장

키이라 나이틀리 & 마크 러팔로 & 헤일리 스테인펠드 & '마룬5' 애덤 리바인
 〈원스〉 감독의 로맨틱 멜로디

“나와 함께 노래할래요?”

희망, 삶의 이유

드라마, 멜로/로맨스 | 2014.08.13 | 104분
 미국 | 15세 관람가 | 감독 존 카니

희망이 있어 우리는 삽니다. 희망이야말로 삶의 동기입니다. 그 무게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희망,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아마 심중팔구는 '비긴 어게인'의 댄(마크 러팔로)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미상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만든 음반회사에서 퇴출된 패배자, 무일푼에 가정에서도 쫓겨난 알코올 중독자에도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중년 남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댄은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 결심을 합니다.

그의 절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동업자로 음반회사를 독자치한 댄의 친구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변했어. 사람도 거기에 맞춰야 해. 그런데 넌 변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음악성보다는 개성 없는 10대 댄스가수들의 화려한 비주얼이 먹히는 세상에 댄이 적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변

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영화 '비긴 어게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악 그 자체의 소중함을 지키려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연과 운명을 통해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말합니다. 열차가 20분 연착되는 바람에 찾아간 술집, 그곳에 친구의 즉흥 제안으로 마지못해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여인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와의 만남. 이렇게 둘은 그레타가 부른 노래 제목처럼 '되돌릴 수 없는 걸음(A Step You Can't Take Back)'을 시작합니다. 누군가 '운명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비긴 어게인'은 음악영화입니다. 음악영화가 음악회나 연주실황과 다른 이유는 음악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고, 주인공들의 인생이 음악 속에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든, 어떤 음악을 선택하든 음악영화가 하나같이 음악공연이나 실황보다 울림이 큰 이유입니다. 음악회라면 초라하고 엉성하다고 느낄 음악에도 우리는 기꺼이 감동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감동과 박수야말로 훌륭한 연주나 노래보다는 주인공들의 인생을 향한 것입니다.

'비긴 어게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댄과 그레타는 음악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음악이 그들의 인생이 됩니다. 무명에 가까운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는 음악으로 변심한 남자친구를 잃은 아픔과 상처를 달래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댄은 그녀의 노래에서 자신이 변하기를 거부한 '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그레타의 노래 'Lost Stars'의 가사처럼 '의미를 찾아가는 길 잃은 별들'이 되는 것은 운명입니다.

물론 운명이라고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만큼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겪습니다. 이별의 상처로 음악도, 무대도 거부하는 그레타, 음반을 내려면 데모테이프부터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음반회사, 돈도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고 녹음할 사람(뮤지션)들도 없는 현실이

다시 시작하는 노래

비긴 어게인

begin again

EXCLUSIVE MEDIA PRESENTS IN ASSOCIATION WITH SYCAMORE PICTURES
 AN EXCLUSIVE MEDIA PRODUCTION A LIKELY STORY PRODUCTION KEIRA KNIGHTLEY MARK RUFFALO HAILEE STEINFELD ADAM LEVINE JAMES CORDEN YASIN BEY CEE LO GREEN AND CATHERINE KEENER IN
 "BEGIN AGAIN" CASTING BY JEANNE MCCARTHY, CSA MUSIC BY GREGG ALEXANDER MUSIC SUPERVISORS ANDREA VON FÖRSTER MATT SULLIVAN COSTUME DESIGNER ARJUN BHASIN EDITOR ANDREW MARCUS PRODUCTION DESIGNER CHAD KEITH DIRECTOR OF PHOTOGRAPHY YARON ORABACH
 CO-PRODUCERS SHIRA ROCKOWITZ JAY WATERMEYER LAUREN SELIG EXECUTIVE PRODUCERS NIGEL SINCLAIR GUY EAST MARG SCHIPPER TOM RICE BEN NEARIN SAM HOFFMAN MOLLY SMITH
 PRODUCED BY ANTHONY BREEMAN TOBIN ARMBRUST JUDD APATOW WRITTEN AND DIRECTED BY JOHN CANNY ©2014 MILESH PRODUC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때 영화는 그들에게 변화와 '발상의 전환'이란 용기를 부여합니다. 댄과 그레타는 친구, 딸, 옛 동료, 심지어 동네꼬마들까지 연주와 노래에 합류시키고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아 거리에서, 공원에서, 호수에서, 지하철에서, 빌딩 옥상에서 음악을 녹음합니다. 음반 '온 더 로드'는 그렇게 완성됩니다. 둘 사이에 음악에 대한 열정과 공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음반 제작과정을 통해 그들은 깨닫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눈이 아니라 귀, 아니 가슴이라는 사실을.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합니다. "평범함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변하게 만들고, 지극히 따분한 순간도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는 그것을 용기를 내지 못하던 댄의 딸이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면서 전자기타 연주로 녹음에 참가하고, 아내와도 음악을 함께 들으며 화해하고, 그레타의 남자친구가 음악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물론 기존의 판매방식을 거부한 그들의 음악도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요. 이렇게 그들의 '비긴 어게인'은 멋진 '해피 엔딩'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노래 'Lost Stars'의 가사처럼 '어쩌면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로 끝나고, 길 잃은 별들이 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하면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희망을 접고 멈춰 버려야 할까요. 상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딛고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용기는 희망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비긴 어게인'은 이전의 수많은 영화음악이 그랬던 것처럼 음악이란 '감동'을 무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상투적입니다. 말이 쉽지 처절한 실패를 맞본 사람에게 누구도 함부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상처나 고통을 누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고통도, 희망도, 믿음도, 용기도, 도전도, 실패도 각자의 몫입니다. 신조차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성직자는 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함께 계십니다."라고. 그러나 그레타는 자신의 노래로 "하느님에겐 기도하지마. 답변은 없을 테니까." 하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좌절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을 때, 하느님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그레타의 노래처럼 묵묵부답일까요. 아니면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Begin Again)."라고 할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이대현 요나 영화평론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536~1541년, 높이 약 13미터, 바티칸 시스티나 소성당
작품 부분: <심판자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성 바르톨로메오와 미켈란젤로 자화상> <죽음에서 깨어나는 영혼>



“〈최후의 심판〉은 신앙인이자 위대한 예술혼의 소유자였으며, 고독한 인간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죽음 이후의 인간의 운명을 그린 것이다. 그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클, 성경과 문학 사이클, 전통과 개혁 사이클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12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달이다. 탄생은 죽음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그린 인류 최고 걸작이다.

이 작품이 그려진 곳은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이다. 미켈란젤로는 이곳에서 1536년에 시작하여 1541년에 완성하였다. 작품을 주문 받았을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 예순이 넘는 노인이었다.

〈최후의 심판〉은 종교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적으로는 기존의 가톨릭 신앙 외에 개신교의 신앙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장소가 교황청의 심장부라는 점과 당시 구교와 신교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가톨릭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당시 교황 바오로 3세는 작품에 대해 참견하지 않고 미켈란젤로에게 창작의 자유를 허락하였는데 이로 인해 〈최후의 심판〉이 탄생할 수 있었다.

작가 개인 입장에서는 예순이 될 때까지 쉽지 않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으며, 절망 고통 고독은 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이로나 작가로서나 이미 왕성한 시기를 넘어 초월적 상태에 접어든 나이 든 대가가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토해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림의 주제는 마태오복음 25장 31-47절이다. 인류 종말의 날, 인간이 죽음에서 깨어나 예수의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이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악을 행한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는 성경 내용을 그린 것이다.

작품의 높이는 약 13미터이니 10층 이상의 건물 높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400명 이상의 인물들을 그렸다. 그림의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

그동안의 전통적 도상과 달리 건장한 젊은이로 그려졌으며, 특히 수염이 없이 묘사되었다. 수염 없는 예수는 초기 그리스도교 이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여기서 다시 등장했다. 그는 나체로 구름 위에 떠 있으며 심판하기 위한 자세인 듯 오른 손을 치켜 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예수는 권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으나 여기서는 서 있는 모습이어서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 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을 그린 듯하다.

마리아

예수의 오른쪽에 마리아가 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 결정에 따라 마리아를 천주의 어머니로 모신 반면 당시 확산되기 시작

한 개신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인들

예수의 양 옆에는 12사도와 이미 천국에 오른 성인들이 그룹을 이룬다. 가톨릭은 성인 공경 사상이 매우 깊은데 이 점은 미켈란젤로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성인들의 얼굴은 표정이 격정적이고 강렬하며, 완전 나체로 그림으로써 지상에서의 권위를 없앴다. 또한 각자의 상징물을 들고 있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사상 최초로 별거벗은 성인들의 집단 초상화로써 천국에서는 성인들도 옷을 입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이들 성인 중에 그리스도의 왼팔 아래서 성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인피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놓았다. 스스로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나팔부는 천사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최후의 심판을 알리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영혼들의 운명이 적힌 책을 들고 있는데 천국행 명단은 작고 얇은 반면, 지옥행 명단은 크고 두껍다. 미켈란젤로는 지옥행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 듯하다.

죽은 이들의 부활

그림 맨 아래의 왼쪽 부분은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죽음에서 막 깨어나는 영혼들이다. 해골상태인가 하면 이제 막 살이 붙어가는 인물도

있다. 이들 영혼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행업에 따라 심판을 받고 바로 이들 위쪽 영혼처럼 천국행이나 지옥행을 하게 된다.

천국행과 지옥행 영혼들

그리스도의 오른쪽 아래에는 선택된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다. 일부는 자력으로, 일부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조금만 올라가면 성인들과 천사들이 있는 천국이다.

이들 반대편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 많은 영혼들이다. 질투, 방탕, 교만, 인색 등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다. 이들 영혼을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지옥

아랫부분 우측에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카론테가 이끄는 배를 타고 지옥의 강을 건너서 지옥의 입구에 떨어지고 있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를 시로 표현하였는데 미켈란젤로는 단테의 시를 참조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곳으로 가야 할 운명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후의 심판〉은 신앙인이자 위대한 예술혼의 소유자였으며, 고독한 인간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죽음 이후의 인간의 운명을 그린 것이다. 그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클, 성경과 문학 사이클, 전통과 개혁 사이클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최후의 심판〉은 자유, 진보, 용기로 대신 될 수 있는 한 천재 화가의 고백이자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다. 

고종희 마리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로마서는 신학문서라기보다 사목편지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까?

로마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의 바오로 대가 로마노 펜나 신부님께서 로마서 강의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로마서를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용기는 바오로 서간 전체를 읽을 때 필요하지만 특히 로마서를 읽을 때 지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간이기는 하지만 인내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특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복음’의 의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자주 말하는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확실한 길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이야기 첫 주제는 로마서를 읽는 데 필요한 배경과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로마서를 썼는가?

로마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에 미친 영향에 못지않게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서를 정말 진지하게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었지요! 말씀의 힘이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그들을 뒤흔든 것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노와 루터입니다. 로마서가 역사 안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서간이라면 이 서간을 쓴 바오로 자신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서간이었습니다. 사실 바오로는 자기 사도생활에서 중요하고 미묘한 순간에,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바오로는 생애 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동체와 관련된 외적 상황을 보면 바오로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코린토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마도 기원후 54년 말이나 55년 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

“ 로마서는 바오로를 사로잡았던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 이야기이자 그분을 따랐던 초대 교회 이야기,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나의 이야기’입니다. ”

났고, 바오로는 이미 몇 통의 서간을 쓴 상태입니다(테살로니카 전서, 코린토 전, 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갈라티아서). 바오로는 특히 갈라티아 지역 교회에서 매우 힘든 체험을 한 후였습니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설교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아주 다른 복음, 바오로가 설교한 것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율법 없이 믿음으로 하느님 자녀가 된다고 한 바오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바오로는 갈라티아서에서 논쟁하는 어조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갈라 2,14)를 변호합니다. 로마서에는 자신이 창설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차분한 어조로 같은 주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외적인 문제 외에 바오로는 당시에 자신의 삶과 관련된 내적 도전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바오로는 넓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들을 창립했습니다. 이제 바오로는 지금까지 해 온 자신의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15,19) 남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서는 선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자

세를 가졌던 바오로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여기고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스페인 선교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서쪽 끝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바오로는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고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참조. 15,23-28).

그러므로 50년대 중반경 바오로가 로마서를 쓸 때 그는 아직 개인적으로 로마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고 로마 교회는 아직도 바오로와 구체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로마 신자들에 대한 소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참조. 로마 1,8; 16,19) 어떤 로마 신자들과 접촉하기도 했다는 단서들을 서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서간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스물네 명이나 되는 로마 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에게 안부를 전하는데(참조. 로마 16,3-15) 다른 서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긴 명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오로가 임박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기도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참조. 15,30-32).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오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고 맙니다(참조. 사도 21,17-39).

로마 교회 편에서 바오로의 로마 방문을 갈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

국의 수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을 뿐 아니라,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곧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는 윤리적 행위보다 하느님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와전시키면서 바오로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참조. 로마 3,8). 신자들에게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참조. 로마 16,17-19). 바오로가 성령 안에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를 정리한 심오한 서간은 로마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만 듣던 바오로를 더 잘 알게 하고 신뢰를 갖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 공동체는?

바오로가 이 서간을 쓰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참조. 로마 1,8; 15,23; 사도 28,15). 로마에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탈리아의 뵘주올리에서 로마로 통하는 고대 상업 도로를 통하여 로마에 들어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최초의 확실한 근거지를 많은 회당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초세기에 로마 유대 공동체는 아주 규모가 컸는데 대략 20개에서 50개 정도의 회당이 로마에 있었으리라 추정합니다. 40년대 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권력층은 이 소요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 유대인 대표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결국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오

로가 언급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구조에서 살아가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전체에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구체적인 그룹들, 가정공동체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16,1.4.5.16.23).

왜 로마서를 썼는가?

로마서의 저술 목적에 대해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으나 지금까지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것은 바오로 자신이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대략 세 가지로 저술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선교목적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오로는 로마에서 더 많은 신자들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
- 2) 호교론적 목적으로 바오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적절한 개념을 변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 3) 사목적인 목적으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여(1,15), ‘복음의 힘’을 신자들이 일상 안에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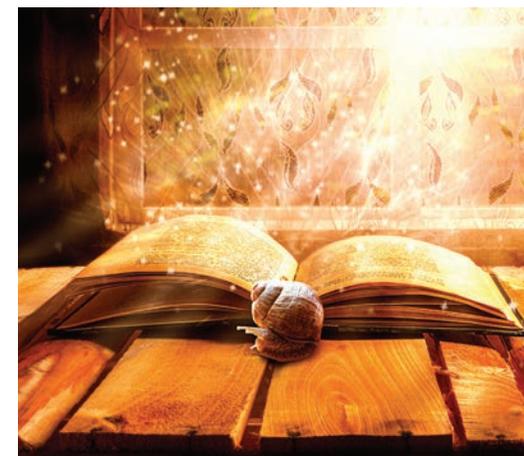
로마서의 저술 목적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함께 놓고 보아야 로마 공동체의 상황과 연결해서 서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로마서는 바오로 신학의 체계적인 요약으로만 간주해 왔으나 현재에 많은 바오

로 학자들은 로마서가 추상적으로 정교한 신학문서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공동체에게 서간, 사목적 차원에서 의사전달을 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로마서 전체의 틀에 해당하는 서문(1,1-15)과 소식(15,14-33)과 인사와 영광송(16장) 안에서 들어 있는 본문은 크게 가르침(1,16-11,36)과 권고(12,1-15,13)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12,1에 나오는 “나는 권고합니다.”라는 동사 사용입니다. 1,16에서 11,36까지 설명한 모든 것의 결과로서 바오로는 이제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고합니다. 가르침과 권고에서 가르침에 해당하는 1,16-11,36이 더 중요한데 그리스도인 행실의 토대가 되는 요소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구조에서 바오로가 로마서를 쓸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 세워진 집 건물이 아니라 그 집을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기초, 나무가 아니라 뿌리,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양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리러리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이다.”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훌륭한 교육자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적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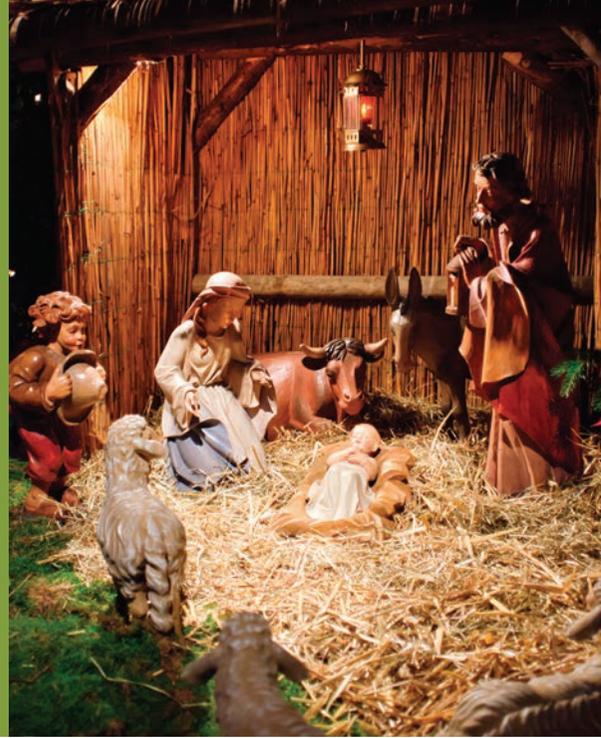


바오로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당대 학자와 설교자들이 사용하던 수사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자신의 인간성과 학문을 분리하면서 가르치는 차가운 학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둘에 둘을 더하면 넷임을 말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를 읽을 때 정제된 지식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과 기록 안에 자신의 삶을 녹여낸 바오로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로 보고 로마서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오로를 사로잡았던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 이야기이자 그분을 따랐던 초대 교회 이야기,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나의 이야기’입니다. 

임숙희 레지나 엔아르케 성경삶연구소 대표

헨델의 걸작 <메시아>의 감동



한 아기가 우리 위해 나셨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네
(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s)
그는 양떼를 먹이시고
(He shall be his flock)

얼마 전 한 형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당 성가대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헨델의 <메시아>라고 하면 ‘할렐루야’ 합창 하나밖에 모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할렐루야 외에도 여러 많은 곡이 <메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요즘에는 그 엄청난 대곡을 틈 날 때마다 들으면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할렐루야=메시아, 메시아=할렐루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아가다의 음악 편지’는 헨델의 걸작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게 되었죠.

헨델의 <메시아>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음악입니다. 부활의 환희,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준비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메시아> 중 가장 유명한 곡 ‘할렐루야’ 코러스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지겨울 만도 한데요. 희한하게도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명곡입니다. 이 곡을 런던

에서 초연했을 때, 당시 영국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를 듣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 뒤로는 ‘할렐루야’를 연주하면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감상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는 <메시아>를 구성하는 수십 곡 중에 하나로, <메시아> 제2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수난과 속죄’, 마지막 3부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 안에서 장대하게 음악이 펼쳐지죠. 1부 첫 곡 신포니아부터 3부 마지막 곡 합창 ‘아멘’까지 모두 들으려면 두 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작을 완성하는 데 헨델이 들인 시간은 불과 3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건강이 악화돼 있던 시기에 말이죠. 그는 <메시아>를 쓰는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작업에 집중했고, 작업 중 “하늘이 열리고 위대한 주께서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털어놓았을 만큼 이 작품에 푹 빠져 있었습니

다. 그렇게 공을 들여 탄생한 작품은 곧바로 청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죠. <메시아>를 듣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극장이 초만원을 이루게 되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중을 들이기 원했던 극장 측에서 여성들에게는 “부풀린 드레스는 자제해 달라.”, 남성들에게는 “칼을 차고 오지 말라.”고 권고했을 정도였다고요.

<메시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가사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Comfort ye, my people)”으로 평화롭게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구세주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실현되는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의 제1부는 전체적으로 밝고 온화한 분위기에 싸여 있으면서도 기대감에서 비롯된 긴장감과 열기와 함께 펼쳐집니다. 아리아와 중창, 레치타티보, 합창 등 여러 형태의 노래들이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소박하게, 주님의 탄생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전해 주죠.

1부 중반에 나오는 “한 아기가 우리 위해 나셨네(For unto us a child is born).” 같은 곡은 경쾌한 템포 위에 성탄의 기쁨이 물씬 풍기는 합창곡이고요. 소프라노의 레치타티보 “양치는 목자

들이 있었네(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s).”나 알토와 소프라노가 부르는 이중창 “그는 양떼를 먹이시고(He shall be his flock)” 같은 곡도 성탄을 준비하며 묵상하기 좋은 아름다운 곡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수난과 속죄를 다루고 있는 제2부의 음악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극적인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면모를 보이고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부각된 제3부는 부활을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전곡 감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일단 대림과 성탄 시기에 어울리는 1부의 몇몇 곡들부터 골라서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작곡가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 작곡하다가 흐느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솔직하고도 극적인 신앙의 표현이 돋보이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안에서 우리도 더욱 기도하며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간추린 평신도의 역사

후안 마리아 라보아 지음
김영식 옮김
가톨릭출판사
140×205
196면
10,000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교회 헌장〉)에서는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교회와 세상에 실천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평신도가 어떠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스페인의 저명한 교회사 학자인 후안 마리아 라보아 신부가 교회사의 흐름에 따라 핵심적으로 정리 요약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유럽의 저명한 교회사 학자들이 주제별로 편찬한 〈서양의 역사, 교회와 사회〉 총서에 포함된 책이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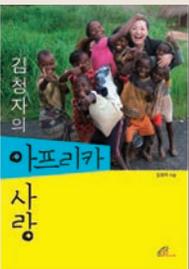
공지영 지음
분도출판사
152×210
312면
16,800원



13년 만에 출간되는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수도원 기행 첫 권에서 작가는 18년 만에 교회와 신앙 그리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달 간의 유럽 수도원 기행을 통해 자신과 인간, 신에 대한 성찰을 담담히 풀어낸 바 있다. 그녀의 수도원 기행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13년의 부침과 여러 사건을 통해 그녀의 신앙과 하느님 체험은 더 깊어졌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수도원을 배경으로 그녀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김청자 지음
바로로딸
150×210
328면
15,000원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섰던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성악가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삶, 인간적 사랑에 몰두하고 새로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발산했던 여인, 두 번의 이혼을 겪은 후 평생을 바친 삶 전체를 내려놓고 마침내 이르게 된 곳,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지 카롱가에서 평화와 사랑의 길을 찾은 김청자의 솔직한 삶의 이야기이다. 우리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전하도록 초대 하심을 깨닫게 한다.

한 권으로 정리하는 성경 TOP 10

메리 엘리사벳 지음
박기석 옮김
생활성서사
240면
12,000원



성경 속 중요 인물, 장소, 다양한 사건들을 한눈에 본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렵게만 여긴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 권으로 정리하는 성경 TOP 10』은 성경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성경 속 중요 인물, 장소, 다양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로 ‘순위 매김’하여 알기 쉽도록 정리해 놓았다.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이승수 옮김
서교출판사
4×6 양장
전 10권 각권 320면 내외
각권 12,900원



이탈리아의 국민작가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대표작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을 기념하여 재출간됐다. 기존 10권 시리즈에서 누락된 원고를 보완하여 한층 더 유려한 우리말로 다시 펴냈다. 출간 직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 시리즈는 가톨릭 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이 책은 자기 주장이 명확한 돈 까밀로 신부와 우직한 공산당 음장 빼빼네, 그리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싸 마을 사람들이 엮어내는 포복절도할 이야기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넘어서

에벌린 이튼 화이트헤드 외 지음
문종원 옮김
성바로
신국판
170면
18,000원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몸이 아파서도 그렇고 물질적인 부족,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들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까닭 없이 느껴지는 고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싶은,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어디서 비롯하였으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알려 주고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우눔옵네스 집행위원회의 개최, 11개국 30여 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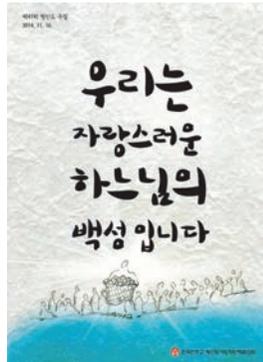
우눔옵네스(UNUM OMNES) 집행위원회의가 지난 9월 21~27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평협이 주관하여 일정을 준비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 11개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장경선 총남대 교수의 발표를 듣고 조를 나눠 토론을 벌였다. 한국가톨릭의 역사를 성기현 신부가 소개하자 참가자들은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했으며, 바티칸 대사를 지낸 한홍순 전 회장과 질의, 응답식으로 한국교회 평신도 활동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가톨릭의 사회사목 활동에 대해 박동호 신부, 장경민 신부가 발표했다.

수요일에 마련된 본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가정의 파괴와 이에 관련된 문제들,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 크리스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기간에 한국의 대표 사찰인 봉은사와 '동소문, 서소문 별곡'이 특별 전시되는 서대문역사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서울은 매우 아름답고 신비로운 도시라고 극찬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47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제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 담당 사제 손희승 / 이하 한국평협)는 11월 16일 제47회 평신도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백성입니



다'라는 제목으로 강론자료와 포스터를 제작했다. 강론의 내용은 위대한 신앙선조를 둔 자랑스러운 평신도로서 소명의식을 깨닫고, 한국사회의 인간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다. 강론 자료와 포스터는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전국 각 본당에 배포되었으며, 한국평협 누리집(www.clak.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제9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최우수상에 최미경 <주님께 찬미 노래를>이 뽑혀

한국평협은 제9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를 통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서울대교구 역촌동성당의 최미경 루치아 씨를 선정하는 등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미경 루치아의 <주님께 찬미 노래를> 외에 우수상에 류현숙 비르짓다(대구대교구 구암동성당)의 <오늘은 당신의 날(축일의 노래)>, 박형빈 비안네(서울대교구 용산성당)의 <하느님께서> 등 두 편이, 장려상에는 김윤석 베로니카(서울대교구 중곡동성당)의 <나의 예수여>와 안창윤 스테파노(서울대교구 흑석동성당)의 <디딤돌>, 정윤미 실비아(대구대교구 두산성당)의 <끈>이 각각 선정됐다. 뽑힌 노랫말들은 한국평협 홈페이지(www.cl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12월 3일 열렸다.

제4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내년도 사업논의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7~8일 부산교구 은혜의 집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2015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6개 교구평협 중 13개 평협과 4개 상임단체장, 한국평협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 개막미사를 주례한 부산교구 손삼석 주교는 "위령성월을 맞아 먼저가신 분들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매 순간 어떻게 살



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예수님의 복음말씀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 여유가 없다. 현재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활용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연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손 주교는 조선교구 초대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강의하면서 비록 순교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최양업 신부와 같은 열정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시다 쓰러져 돌아가신 주교님의 시복시성을 염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권길중 회장은 "깊은 신앙심의 걸모습 뒤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고위성직자를 보좌한다는 자만 속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업적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일은 비단 본당 사목자들만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평신도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항상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해 관구별 토론을 통해 구체적 의견들을 나누고 내년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둘째 날 참석자들은 오륜대 순교성지로 이동해 이번에 복자품에 오른 이정식 요한 순교자와 양재현 마르티노 순교자의 묘소를 순례하고 순교박물관을 관람했다. 파견 미사를 집전한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강론에서 "순교자들은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거꾸로라는 진리를 아는 분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깨달은 분이다."며 "알팍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세상으로 시선을 확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로 나아갈 때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고 올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 범종단이 함께 동참하기로



한국평협 권길중 바오로 회장을 비롯한 각 종단 평신도 단체 대표들은 지난 11월 13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별관에서 '국민화합을 위한 7대 종단 간담회'를 열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 회장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율에 따라 갈등과 경쟁으로 치달는 사회를 화해와 일치의 사회로 만드는 데 종교인들이 앞장서자."면서 "종교인들이 자기 쇄신과 사랑 나눔을 시작한다면 국민들도 자기 쇄신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신교, 불교, 유교 등 6개 종단에서 참석한 종교인들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취지에 공감함을 표시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장수 부회장은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개신교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광준 신부는 "평신도가 중심이 돼 이뤄지는 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교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육철희 국장은 "'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이름이 추상적"이라며 "분야별로 교육자

를 양성해 시민들에게 무엇이 '답게' 사는 것인지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교 성균관 기획부장 이용주 씨는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해 사회지도층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 평신도단체 대표들은 7대 종단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운동 전개 방식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신심운동단체 33개 단체 총 66개 단체가 함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40개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르투루바이와 서울대교구 사진가회가 단체 사도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제4차 정기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과 홍콩의 평신도 아시아 선교협력 다짐



서울평협은 홍콩교구 교우총회(회장 戴經剛 · 담당사제 劉德光)와 상호 교류를 위한 첫 모임을 열고 친교와 나눔으로써 아시아선교를 위한 연대를 다져 나갈 것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20일, 2박3일의 일정으로 홍콩을 방문한 서울평협 담당사제와 임원 21명은 홍콩교구 성십자가성당에서 홍콩교구 교우총회 임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 후, 홍콩교구와 교우총회의 소개와 주요 활동에 대한 안내를 듣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현재 바티칸과 중국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교구의 평신도들이 서울교구 평신도와의 만남을 통해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교류를 위한 양측 담당자를 정하고 앞으로의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콩교구 교우총회 타이 회장은 "오늘의 만남이 이러한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고, 서울평협의 권 회장은 "같은 아버지 아래 비록 말은 다르지만 한 형제자매인 것을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교류 만남을 마치면서 손 신부는 "하느님의 손길이 이 만남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홍콩의 평신도 활동을 보면서 매우 잘 양성됐다는 생각을 했으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격려했다.

홍콩교구 교우총회는 교구 내 51개 본당과 28개 평신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임원 성지순례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 담당사제 손희송 / 이하 서울평협)는 임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성지순례를 지난 10월 24일 개최했다.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성지순례는 서울 명동에서 출발해서 대전교구 성거산 성지와 수원교구 요당리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평협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조화수)가 주관한 이번 순례에 참여한 임원들과 가족들은 성거산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 후 줄무덤을 순례하고, 요당리 성지로 이동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다. 두 성지는 병인박해와 큰 관련이 있는 곳으로 시복시성위원회 김기혁 위원의 자세한 성지 소개와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번 124위 복자의 시복을 감사하며 하루 빨리 시성되기를 기원했다.

제3차 정기 단체장회의 개최

서울평협은 지난 10월 7일 명동가톨릭 회관 2층 강당에서 3분기 정기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단체장회의는 서울평협 회원인 직능단체 33개 단체와

사도직 단체의 대표들의 모임으로 우리나라의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와 유사한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선교와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홍콩교구 신학교를 졸업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격월로 모이는 정기회의를 통해 교구장이나 교구 사제들의 바람을 전하고, 본당이나 단체들의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교구와 본당 · 단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교회회를 보고 시작했다는 가두선교 역시 최근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상장예식'에 의한 연도 녹음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회장 이병순 · 담당사제 송우석)는 연도(가칭) 보급을 위하여 2013년 9월 주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2013년 2월 15일 '상장예식'에 의한 녹음을 하였다.

2014년 6월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연도강사와 연도경연대회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하여 10명을 선정하여 성악전공 교수와 국악전공자들의 지도 아래 3개월 동안 연습 후 2014년 9월에 녹음하였다. 녹음한 연도(가칭) 음원은 11월 1일 가톨릭굿뉴스 자료실(가톨릭정보 위령기도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 게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북부지구 한생명 "생명과 사랑 나눔" 행사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명수 · 담당사

제 김명현 / 이하 대전평협)는 10월 12일 전민동본당에서 북부지구 한생명 '생명과 사랑나눔' 행사를 하였다.

한생명 운동은 헌혈과 조혈모세포, 장기기증 운동으로 북부지구 11개 본당이 참가하여 오전 9시 30분 헌혈 문진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전민동본당의 방경석 알로이시오 신부, 덕명동성당의 황영준 시몬 신부, 오후에는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가 천안 불당동성당 견진성사를 위한 길에 직접 헌혈에 참가하였다.

북부지구 지구장이며 전민동성당 주임인 방경석 신부는 "장기 기증과 헌혈은 우리 본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선물 받은 것을 우리가 소중히 사용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빛이신 하느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남겨줄 때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미사 강론을 통하여 신자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북부지구 한생명 운동의 결과는 헌혈 신청 47명 중 37명, 조혈모세포 기증 13명, 장기기증 114명으로 이후에도 장기기증은 교구 평단협 한생명운동본부에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



대전평협이 주관하고 대전교구가 주최하는 '2014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가 10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둔산동 샘머리공원과 그 일대에서 교우 및 일반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 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2013년 6월 2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에서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

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외형으로 사람 꼴을 다 안 갖췄다 하더라도 생명이 아니냐고 물으면 분명 생명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생명이란 단어를 피하고 사람이나 인간이란 단어를 사용해 꼴을 갖췄다 안 갖췄다는 것을 따지는 억지스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때 우리는 모두 태아였고 그러므로 어머니 몸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카리타스 한생명 대추제의 행사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대전교구는 교구 설립 60주년 되는 해인 2008년부터 구체적인 생명 운동 실천을 위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자발적 장기기증 운동을 펼쳐, 이를 교구 내 각 성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번 한생명 대추제는 교회 안에서만 생명운동을 실천하기보다는 시민들도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샘머리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헌혈,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 낙태 반대 홍보, 생명 존중 사진 전시, 대전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시연, 호스피스 홍보 등 볼거리와 참여해 함께할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오전 10시 30분 샘머리 공원에서 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의 주례로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참가자 전원이 ‘생명사랑, 생명선택’이라고 적힌 노란풍선과 낙태 반대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 현수막 등을 들고 샘머리공원을 출발해 모정네거리를 거쳐 대전고법과 시청역네거리를 경유해 다시 샘머리공원으로 돌아오는 약 2.5Km 거리를 행진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 수호 행진”을 했다. 또 오후 1시 30분부터 대전가톨릭 만돌린오케스트라와 대전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작은평화, 저니투헤브이 함께하는 ‘생명수호를 위한 작은음악회’를 이어갔다.

보령지구 보령동대동성당 한생명 홍보



대전평협 한생명운동본부는 11월 16일 보령동대동성당(주임사제 김민희 바오로·사목회장 김길동 아오스딩)에서 대전교구 한생명 운동 홍보 행사를 실시하였다. 국화 향기가 가득한 보령동대동성당에서 생명 존중, 생명 수호, 생명 나눔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인 생명 잇기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보령동대동성당을 비롯한 보령지구(지구장 권일성 신부) 7개 본당은 성당별로 11월 중 한생명 운동 ‘생명과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월 위령의 날 미사봉헌



인천교구는 11월 1일 교구에서 사목하시다가 선종하신 사제들과 모든 연령들을 위해 묘지 5곳에서 위령 미사를 봉헌했다. 백석 하늘의 문 묘원(인천시 서구 당하동 산 152-1)에서는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집전으로 위령 미사가 봉헌되었고, 마전동 묘원(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

164)에서는 총대리 정신철 주교, 포동 묘원(경기도 시흥시 포동 성당)에서는 포동 본당 유민균 주임신부, 매곡의 모후 묘원(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60-2)에서는 김포 본당 백순기 주임신부, 부평 공설공원묘지(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인천 가족공원 팔각정 앞 광장)에서는 부평3동 본당 강영식 주임신부가 집전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여성연합회 사랑의 나눔 일일 찻집행사



10월 25일 교구 여성연합회(담당사제 안규태) 주최로 10시부터 사랑의 나눔 일일 찻집이 인천 청연성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기복 연예인 찬양 선교사의 은혜로운 찬양과 많은 노래로 모든 교우들이 따뜻한 차와 함께 사랑의 나눔을 가졌다.

2014년 본당 여성대표 및 단체장 교육



본당 여성대표 및 단체장 교육이 10월 21일 9시 30분에 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유용숙·담당사제 안규태) 주관

으로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있었다. 미사 중 강론에서 안규태 신부는 “가톨릭 신앙의 깊은 뿌리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많은 사람이 천주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또 유기복 연예인 찬양 선교사의 찬양 인도 후 대전교구 김선태 신부가 ‘봉사자의 실천하는 삶’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다.

성령쇄신봉사회 성령대회 개최



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김남순·담당사제 이상희) 주관으로 2014년 인천교구 성령대회가 11월 2일 인천도원실내체육관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령쇄신봉사회 교구기와 각 본당 성령기도회기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이상희 신부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후 제1부 차동엽 신부의 강의와 제2부 오웅진 신부의 강의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제3부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사제단이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최기산 주교는 강론을 통해 “교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성령의 활동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사랑의 사도로서 이웃에게 삶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교우들의 깊은 믿음을 보며, 인천교구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교구 성령쇄신봉사회에서는 매주 목주기도 200단(월), 성가정 축복·치유기도회(화), 회복기도회(금), 철야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회 2014년 제2차 연수활동

10월 19일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김길원·담당사제 이상희)는 인천인재개발원에서 2014년도 본당 사회복지분과 제2차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구 내 52개 본당 320여 명이 함께한 이날 연수는 오전

미사와 오후의 단합과 친교를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미사 중 이상희 신부는 강론을 통해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느님이 맡기신 사명을 행한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내주고 나누어야 한다. 오늘은 사랑의 축제이다.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며, 좋은 것을 많이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자.”고 강조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모신심 신앙대회



10월 7일 갑곶순교성지에서 인천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 담당사제 빙상섭) 성모신심 신앙대회가 열렸다.

신앙대회는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는 기도의 주제와 ‘죄인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여라. 그리고 티 없는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라.’는 파티마의 메시지를 주제로 환희의 신비 5단 묵상과 유기복 찬양선교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했다.

서울대교구 조규만 주교는 강연에서 “이들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성모님의 뜻을 본받아 희생과 극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 후에는 총대리 정신철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ME 가족모임



10월 12일 송도 글로벌 대강당에서 제20회 인천 ME(대표 유상열 김순옥 부부 · 담당사제 오병수) 가족모임이 열렸다. ME 부부 1,500여 명이 모여 흥겨운 친교 시간과 부부일치의 시간을 가졌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라 5.13)라는 주제로 부부 대화를 나누었고 지구별로 ME 주말을 화상하며 주제별 공연을 펼쳤다.

가톨릭합창단 가을음악회 개최



10월 31일 저녁 7시 30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교구 인천가톨릭합창단(단장 조미애 · 담당사제 빙상섭)은 김도환 지휘, 임미혜 반주로 ‘가을사랑’이란 주제로 음악회를 가졌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4 교구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



수원교구 마라톤동호인연합회(회장 최효용 · 담당사제 최진혁)가 주관한 ‘2014 수원교구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가 10월 9일 미리내 성지에서 열렸다.

7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여느 대회와는 달리, 단순한 마라톤 동호인 경기가 아닌 장애인 170명, 이주민 100명, 새터민 24명과 그 가족 및 봉사자들이 초청되어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뛰고 걷는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였다.

최진혁 신부는 강론에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후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경기에 참가했던 자토펡 선수의 일화를 소개하며, “육상선수는 머리에는 꿈

을, 가슴에는 희망을 품고 뛰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인생이 아름답고, 내가 달릴 길이 하느님께서 주신 길임을 믿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도 바오로와 순교성인들처럼 확신을 갖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5Km, 10Km 달리기에서 1, 2, 3위를 차지한 남녀 선수들에게 상품이 수여되었다.

제10회 총대리주교배 어린이복사단 축구대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회장 윤용현 · 담당사제 전삼용)가 주관한 ‘제10회 수원교구 총대리주교배 어린이복사단 축구대회’가 10월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인조 보조구장 및 풋살구장 등 5개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어린이복사단 축구대회’에서 각 본당은 열두 사도 이름으로 정한 조에 소속되어 모두 60게임(정규 리그 16개 팀 24경기, 미니 리그 24개 팀 36경기)을 벌여 조별 승부를 가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운동장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헌된 10주년 감사미사를 주례한 총대리 이성효(리노) 주교는 강론에서 “축구대회에 참석하려면 축구화를 신고 유니폼을 입듯이, 미사에 참여하려면 사랑 · 봉사 · 감사 등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각 본당의 미사성제에서 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어린이 여러분들이, 축구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려 ‘협력’하는 모습은 더욱 아름답다.”며 복사단 선수들을 격려했다.

노인대학연합회 회원 기차여행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회장 임종인 · 담당사제 송영오)는 10월 26~27일 무박2일로 참가자 500여 명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26일 자정에 수원역을 출발하여 27일 새벽 6시에 정동진역에 도착한 후 해변으로 이동하여 7시에 야외 미사를 봉헌했다. 송영오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볼 때 50세 이전은 준비기간이고 50세 이후는 완성되어가는 시기”라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깊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외롭지만 신앙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6회 수원교구 정기사진전



수원교구 사진가회(회장 지한구 · 담당사제 김우정)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전실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정기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작품 78점 등 총 134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교구장 이용훈 주교, 총대리 이성효 주교의 작품을 비롯해 최재용 신부, 이상각 신부, 김민호

신부, 신정윤 신부, 한정욱 신부의 작품과 수원가톨릭대학교 사진동아리 '아미고'의 신학생 작품 6점 등 초대작품 16점과 한만삼 신부의 아프리카 선교사진 12점, 교구 사진가회의 스페인·포르투갈 성지순례 사진 18점이 함께 전시되었다.

김우정 신부는 격려사에서 "전시회 주제가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오늘 이 전시회가 기쁘게 행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지한구 회장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묵상하면서 결국 '영원한 행복을 주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목회장 협의회 발족

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헌 주교)가 사목회장협의회를 발족했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정성기 씨(덕소본당)를 선임했다. 76개 본당 사목회장들로 구성된 사목회장 협의회는 총 4장 13조로 된 사목회장 협의회 정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인준했다.

한편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2015년도 사목교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사목회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교구 평신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구의 발전은 물론 신자들의 영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의정부 교구는 2015년 상반기 중 '사목회장협의회'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총구역장협의회'를 한데 묶어 '의정부교구 사목평의회'(의장 이기헌 주교)를 구성할 예정이다.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문호·담당사제 강신모)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인광)와 공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부터 의정부 청소년회관 한울관에서 교구장 이기헌 주교를 비롯해 교구 사제단과 4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자선 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이 교구 내 저소득가정의 난방비로 지원됐다.

평화방송 정원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 음악회는 요즘 헤비메탈 사운드를 바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밴드 '세븐 데이즈'의 열창과 중창단 '칸타네 도미즈 싱어즈'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을 전했다. 특히 선천성사지기형 1급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세계에서 유일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된 이희아 히아친다 자매의 열연과 열창에 관객들의 탄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시복감사 순교자 공경신앙대회



의정부교구는 '교구설정 10주년 및 시복감사 순교자 공경 신앙대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정부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교구장 이기헌 주교를 비롯해 200여 명의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순교자 공경을 위한 순교 상황극과 토크 콘서트'(1부), '교구 10주년 영상과 퀴즈'(2부), '교구설정 10주년 및 시복감사 미사'(3부) 등으로 구성된 이 공경대회는 순교자 정약중 부자의 삶의 궤적을 담은 상황극이 압권이었다. 특

히 정약중 부자역을 맡아 열연을 보인 연극인들의 열연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감사미사 강론은 통해 "우리 모두가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때"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초대에 목숨을 바쳐 응답한 순교자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구하자."고 말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0월, 11월 각종 행사 개최



대구대교구 평단협(회장 박해룡·담당사제 박영일)은 10월 9일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를 체육인회 주관으로 하양 가톨릭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또 11일에는 교구 평신도 위원회와 평단협 상임위원들이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함께 합동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14일에는 대구성서 실내 게이트볼 구장에서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실시하는 등 몹시 바쁜 10월 일정을 보내었다. 또한 11월 1일 오전에는 동호인 단체인 가톨릭 사진가회 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같은 날 60여 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일 평단협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2015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대하여 박영일 신부님의 특강이 있었고 그룹별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놓고 열정적인 토론 후 그룹나눔 발표를 가졌다.

대구평단협 소식지 발행



대구평단협은 정기총회를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사항들을 담은 통권 27호 대구 평단협지를 발간 배포하였는데 금년 8월의 교황방한과 시복경축문화예술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11월 23일에는 평단협 가톨릭음악이 주최한 대림성탄 전례음악 세미나가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130명의 각 본당 전례음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산교구 복자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시복 감사미사와 도보성지순례백서 발간 봉헌



부산교구는 2014년 9월 27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복자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복을 기념하는 감사미사를 거행하였다. 시복감사미사에 앞선 식전행사로 시복감사기념 행사를 가졌다.

손삼석 요셉 총대리 주교의 개회선언으로 시복감사기념행사가 시작되었고, 한건 도미니코 신부가 시복준비 종합보고를 하였다. 이어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8년 8월 30일 시작하여 2014년 5월 14일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제70차에 걸쳐 실시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마감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봉헌하였다. 시복감사미사 중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순교자는 나의 진정한 주인인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삶에 대하여 각성하고 깨우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124위 순교 복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고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6지구 문화복음화를 여는 제2회 성가합창제



2014년 11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가야성당에서 제6지구 문화복음화를 여는 성가합창제가 열렸다. 6지구 11개 본당(성지, 엄궁, 당감, 모라 성요한, 가야, 전포, 서면, 양정, 개금, 주례, 사상)이 참가하여 천상의 화음을 선보였다. 아뉴스데이 합창단과 사제, 수도자, 회장단이 특별출연했다. 6지구 회장단(제6지구장 김현일 예로니모 신부, 지구 회장 이상범 토마) 주최로 열린 성가합창제는 2015년 부산 교구사목지침인 ‘문화복음화의 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교님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 담당사제 우원주)는 10월 9일(목) 장성 교우촌 일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교님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순례길은 장성 매남공소를 출발



하여 금곡영화마을과 신수동공소터, 솔재와 성진원공소를 거쳐 출발지인 매남공소로 돌아오는 약 12.5km였다. 장성 사거리성당 일대에는 17~18세기에 박해를 피해타 지역에서 숨어든 교우들에 의해 교우촌이 곳곳에 형성되었는데, 매남공소는 그중 하나이다. 한편 성진원공소는 1960년대 소록도에서 한센병이 완치되어 나온 교우에 의해 형성된 교우촌이다.

2014 평신도대회 심포지엄 및 ‘가정의 해’ 폐막미사

광주평협은 11월 1일 평생교육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평신도대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교구장 사목교서인 ‘가정의 해’(2012~2014년)를 마무리 하면서 신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실천사례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가정의 해’ 실천사례 공모에서 우수상 단체부문은 호남동성당 가정봉사단, 개인부문은 보성성당 유태규(F.살레시오) 학생이 수상하였다.

단체평협 임원연수회



광주평협은 11월 15일 평생교육원에서 21개 단체 6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평협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목국장 우원주 신부의 특강으로 ‘가정의 해’(2012~2014) 마무리와 2015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본당의 해’ 소개가 있었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광주대교구 도입 50주년 기념미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9월 27일 평생교육원에서 50주년 기념 사진전과 함께 ‘광주대교구 도입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1964년 3월 계림동성당에서 시작한 빈첸시오회는 현재 교구 내 10개 지구 이사회(72개 협의회)에서 9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뿐 아니라 이주민과 해외원조 등 그 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서부지구 합동 감사미사 봉헌



광주서부지구평협은 10월 19일(일)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가정의 해’를 보내며 10개 본당 1,200여 명의 사제, 수도자, 신자가 하나 되는 지구합동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특히 화정4동본당 최광복 형제의 ‘가정의 해’ 동안 신앙적인 은총 사례발표는 좋은 표양을 보여 주어 사랑 안에 한 가족임을 새겼으며 친교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동부지구평협 한마음 나눔 축제

광주동부지구평협은 ‘가정의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0월 25일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감사미사와 한마음 나눔 축제를 갖고 청소년사목국장 김관수 신부의 특강과 본당별 사례발표를 가졌다. 이어 점심식사로 나눔

을 가진 뒤 본당 소개와 장기자랑을 통해 즐거움과 화합의 마당을 벌였다.

꾸르실로 음악제



꾸르실로 사무국은 10월 25일 금호고 · 중앙여고 축곡관에서 ‘일어나 비추어라’라는 주제로 꾸르실로 음악제를 개최하였다. 울뜨레야 가족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이번 꾸르실로 음악제에 각 지구 울뜨레야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한 곡들을 불러 화합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어 열린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꾸르실리스따들이 성극, 고전무용과 난타, 그리고 원로봉사자들의 중창으로 따뜻한 친교의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팽목항 미사와 십자가 행진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3시에 진도 팽목항에서 사제 60여 명과 수도자,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 집전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이번 미사의 의미는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미사 후 실종자 9명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하며 십자가를 앞세우고 팽목항 등대까지 침묵행진을 벌였다.

지구평협 임원연수회



광주평협은 대림시기를 맞아 교구 사목국장 우원주 신부의 특강으로 지구별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를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에서는 ‘가정의 해’(2012~2014년)를 마무리하고 ‘본당의 해’(2015~2017년)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서울, 경기지역 교수 피정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는 10월 4~5일 성바오로 피정의 집(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경기지역 대학교수 및 배우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실시하였다. 강유수(마리

요한) 신부님의 지도로 회심(메타노이아)과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와 기도,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호남·제주지역 교수 피정

호남제주지역 가톨릭교수협의회는 11월 15~16일 전남대 장성 수련원에서 호남지역 대학교수 및 배우자 18명과 두 분의 신부님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실시하였다. 노성기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신부님의 지도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기도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제142차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지난 11월 17~21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제142차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를 열었다. 성직자·수도자 등 총 71 명이 하느님의 실존 체험과 사랑을 나누었다. 이 기간에 체험담을 통한 다채로운 강의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2014년 하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 개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10월 8일 청주교구 내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이하 ‘선교회’) 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



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2014년 사업보고와 평가, 선교회별 활동 나눔이 있었고, 2015년 사업재원 마련과 전국 레지오마리아 피정 개최지 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주교회의 지원 사업인 점자 신앙서적 발행 보급을 각 교구 선교회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결의했다. 창립 첫들을 맞아 처음으로 전국 행사를 개최한 청주교구 선교회에서는 전국의 회장단을 환영하며 흥겨운 풍물 공연을 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39번째 회원병원으로 가입 승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이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원병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월 24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개최된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협회의 회원병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탁해 5년 동안 운영되며 병원장은

정수교 교수이다.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사고 부상자 치료 재활전문병원이며 개원일은 지난 10월 1일이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에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일반 병원이나 병원장, 행정부원장 등 내부 조직이 가톨릭병원협회 이념에 따라 운영된다.

한국가톨릭약사회

솔의 성지순례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10월 26일, 회원 40여 명이 솔의 성지와 공세리 성지를 순례했다. 공세리 성지 성당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경으로 대전 평화방송이 펼치는 야회음악회가 진행 중이었다. 박익서 3형제의 순교자 묘역과 성당주변 오솔길을 따라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는 14처를 돌면서 기도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세계 가톨릭 의사협회 총회와 학술대회 참석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홍영선)는 10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가톨릭의사협회(FIAMC) 총회 및 학술대회를 다녀왔다. 한국에서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대표담당사제인 김평만 유스티노 신부와 전 회장인 조건현 암부르시오 교수와 회장인 홍영선 안드레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The Catholic Doctor in an Era of Secularization and Technology’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300명가량의 회



원이 참석했다. Dr. Jose Maria Simon의 후임으로 싱가포르 가정의학과 의사인 Dr. John Lee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가톨릭의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과 비가톨릭 환경에서 일하는 가톨릭 의사들의 문제, 또 가톨릭 병원에서 일하는 비가톨릭 의사들의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홍영선 안드레아 회장이 'Experience in Medical Ethics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and Physicians 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는데 여러 나라 가톨릭 의사들이 이 강의의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출간한 의료윤리 교육책자를 영역한 것이 없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윤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기 FIAMC 총회는 2018년 포르투갈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제5차 간호영성 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는 10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회원들의 간호영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영적 간호 실현을 위한 제5차 간호영성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학술위원장 권인각(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간호부장) 이사의 진행으로 △영상기도 및 인사(홍현자 회장) △성 미디어와 영성(이광호 교수) △시 비평과 치유의 영성(김성리 교수) △마침기도로 보람 있는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2014 가톨릭 학교장회 총회 및 연수

2014. 10. 15(수)~17(금)에 광주시 매월동 살레시오 수녀회 피정의 집에서 30명의 가톨릭 학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되었던 가톨릭학교장 총회를 가톨릭학교장 연수와 통합하여 개최하였다.

제8회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세미나

10월 16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8회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세미나의 주제는 '죽음의 문화와 생명 교육', 부제는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을 위하여'였다. 광주 대교구 살레시오 고등학교 최양업 홀에서 개최되었으며, 가톨릭 학교장들을 비롯하여 9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성, 생명 교육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지영현 신부), '인공피임 교육의 문제점과 가톨릭적 성교육의 대안'(이광호 박사), '가톨릭 학교에서의 생명존중교육 실천사례'(전수영 틴스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